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23 호 12 월 5 일

평양 근로자사 1964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지

제23호 (261)

1964년 12월 (상)

(반월간)

차 례

혁명적 작품을 창작하는 데 힘을 집중하자

김 일성 동지는 지난 11월 7일 작가 예술인들을 접견하고 우리 혁명의 전망과 문학 예술의 현 상태로부터 혁명적 문예 작품들을 더욱 왕성하게 창작할 데 대한 력사적 교시를 주었다.

김 일성 동지는 금번 교시에서 우리 문학 예술의 혁명적 사명과 발전 방향, 그 중심 과업과 혁명적 작품 창작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리론 실천 상 문제들을 심오하게 천명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이 교시는 작가 예술인들을 새로운 창작적 앙양에로 불러 일으킬 강령적 교시로 된다.

모든 작가 예술인들은 김 일성 동지의 교시의 본질과 그 의의를 심오하게 파악하고 조국 통일의 위업을 하루 속히 달성하기 위하여 혁명적 작품 창작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지난 시기 우리 문학 예술은 수상 동지의 1960년 11월 27일 교시를 받들고 천리마 현실의 반영과 현대성 구현에서 거대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로동 계급과 천리마 기수의 전형 창조에서 새로운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문학 예술이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

그 중에서도 과거에 가장 뒤떨어져 있던 영화 예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작년에만 하여도 예술 영화들인 《붉은 꽃》, 《정방공》, 《백일홍》, 《1211 고지의 방위자들》과 기록 영화 《공화국 기치 만세》와 같은 성과작들이 나왔으며, 금년에도 또한 《인민 교원》, 《처녀 중대장》, 《대지의 아들》(3 부) 등과 같은 좋은 영화들이 창작되였다. 이것은 씨나리오 창작과 영화 예술 전반에서 거대한 전진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전문 예술 뿐만 아니라 군중 문화 예술도 급격히 발전하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 당 문예 정책의 위대한 생활력을 확증하여 준다.

우리 문학 예술은 이처럼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문학 예술의 현 상태에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우리 혁명은 발전하는 문학 예술 앞에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 혁명의 높은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문학 예술은 아직 조국 통일의 혁명 위업에 훌륭하게 기여할 수 있는 혁명적 작품을 많이 창작하지 못 하고 있으며 남조선 문제에 충분한 관심을 돌리지 못 하고 있다.

오늘 우리 문학 예술 앞에는 이러한 부족점을 극복하고 혁명적 작품을 왕성하게 창작할 데 대한 과업이 중심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혁명 위업과 우리 현실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인 동시에 국제적 규모에서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는 계급 투쟁과 세계 혁명 발전의 요구이며, 우리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 예술 자체의 성격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내'적 요구이기도 하다.

오늘 전체 조선 인민 앞에는 남반부에서 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남반부 인민을 해방하며 조국 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완수할 혁명적 과업이 최대의 민족적 임무로 제기되고 있다.

남반부에서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민족 해방 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총검으로 지탱되던 리 승만 괴뢰 정권도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의 영웅적 항거에 의하여 붕괴되고 말았다.

오늘도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은 미제와 박 정희 매국 도당을 반대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은 투쟁의 열매를 원쑤들에게 빼앗긴 4.19의 쓰라린 경험에서 교훈을 찾고 자유와 해방을 전취하기 위하여, 북반부 인민들과 함께 살 통일되고 행복한 그 날을 위하여 더욱더 미제와 그 주구를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

우리는 싸우는 남반부 인민들을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그들에게 원쑤에 대한 증오심과 계급적 각오를 높여 주며 승리에 대한 신심과 혁명적 열정을 고무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불굴의 투사로 되게 해야 한다.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사업은 남북의 전체 인민들에게 부과된 공동적 임무이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사회주의 지상 락원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이 행복에 만족할 수 없다.

그것은 한 피'줄을 이어 받은 남반부의 2천만 동포들이 양키들의 압박과 착취 하에 신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되며 또 잊을 수도 없다.

우리 혁명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만으로 끝날 수 없다. 우리는 남반부 인민을 해방하고 조국 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완수하기 위해 계속 혁명해야 한다.

그러므로 북반부 인민들은 북반부의 혁명 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하면서 남반부 인민들과 함께 민족 해방 혁명을 끝까지 완수할 결의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며, 특히 북반부 청년들은 필요할 때에는 언제나 남반부 청년들과 힘을 합하여 조국 통일 위업을 성취할 결정적 투쟁에 동원될 수 있도록 준비되여 있어야 한다.

이렇게 북반부 인민들과 청년들을 혁명에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혁명적 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과거에 제국주의자들과 지주, 자본가들의 압박과 착취를 받아 보지 못 하고 자라 난 새로운 세대들이 오늘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보위 초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정으로 하여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만일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행복에만 도취하여 안일

하게 살면서 남반부 인민들과 우리의 혁명 위업을 잊어 버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의 전체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청년들을 혁명가로 교양하는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혁명적 작품을 왕성하게 창작해야 할 필요성은 또한 우리의 혁명적 생활 자체의 요구이기도 하다.

창작의 모체는 생활이다. 예술은 응당 시대의 혁명적 생활을 반영해야 한다.

20 세기의 우리 나라 력사와 현실은 참으로 위대한 투쟁과 혁명적 랑만으로 충만되여 있다.

20 세기 전반기의 력사는 항일 무장 투쟁으로 빛나고 있고 그 후반기 력사는 미제를 력사 상 처음으로 타승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공훈으로 빛나고 있다.

우리 조선은 그야말로 두 사회 제도의 첨예한 대치점이고 세계적 모순의 축도이며 남조선은 혁명의 화산이고 우리 공화국은 천리마의 나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

우리 생활과 우리 력사의 이러한 영웅적 특성과 혁명적 내용은 우리 문학 예술에 훌륭히 반영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문학 예술의 혁명적 성격과 그의 고상한 사명도 또한 혁명적 작품을 왕성하게 창작할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인민 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함에 있어서 문학 예술은 참으로 강력한 생활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문학 예술이 사람들의 두뇌와 리성에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심장과 감정에도 작용하며 심심풀이나 오락의 대상이 아니라 혁명에 복무하는 위력한 사상적 무기이기 때문이다.

탁월한 혁명가들 중에는 혁명적 문예 작품을 통해 투쟁의 길에 들어 선 사람이 적지 않다.

이처럼 문학 예술은 혁명가를 키우는 강력한 교양 수단으로 된다.

여기에 또한 혁명적 문학 예술의 고상한 사명이 있다.

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혁명적 작품을 왕성하게 창작해야 할 필요성은 우리 혁명의 임무와 생활의 특성 및 문학 예술의 사명으로부터 강력히 제기된다.

전체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적 작품 창작이 혁명과 생활과 문학 발전의 절실한 요구로 된다는 것을 심장으로 통감하고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작품 창작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혁명적 작품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혁명가로 키우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다. 그것은 혁명 투쟁과 혁명가들의 생활을 반영하고 혁명적 기백으로 일관되여야 한다.

이러한 혁명적 작품을 왕성하게 창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혁명적 주제를 옳게 잡고 그 령역을 확대하여야 한다.

문학 예술 작품의 주제는 작가의 일정한 사상에 의하여 선택되고 평가되고 묘사된 생활 자료들을 통해서 제기된 작품의 기본 문제이다.

그러므로 주제는 우선 작품의 생활적 소재와 밀접히 련관된다.

우리 문학 예술의 혁명적 주제는 우리 인민의 해방과 독립과 통일을 위한 혁명 투쟁을 바로 자기의 생활적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민족적,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는 첨예한 계급 투쟁에 기초한 혁명 투쟁을 자기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적 주제에 기초하여 혁명적 작품을 많이 창작하기 위해서 주제의 생활 령역을 옳게 파악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1930 년대 혁명 전통이 혁명적 주제의 생활 령역에서 차지하는 의의를 지적함과 함께 혁명적 주제의 폭을 확대할 것을 말씀하면서 남반부 인민의 투쟁과 해방 후의 혁명 투쟁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를 특히 강조하였다.

오늘 우리 문학 예술에서 날카롭게 제기되고 있는 혁명적 주제의 생활 령역의 하나는 남반부 인민의 혁명 투쟁과 남반부 혁명가들의 영웅적 생활이다.

남반부 인민들과 투사들은 원쑤들의 혹독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싸웠으며 또 싸우고 있다. 투쟁하는 행정에는 우여곡절과 시련이 동반되게 마련이다. 어려운 난관과 역경에 처하고 감옥에 갇히더라도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투쟁하지 않고서는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없다. 승리의 영예는 오직 시련을 뚫고 용감히 싸우는 사람에게만 차례진다.

우리는 곤난과 역경 속에서 싸우는 남반부 인민의 투쟁을 묘사하고 혁명 투사들을 찬양해야 하며 그들을 혁명적 락관주의로 고무해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4.19의 인민 봉기, 애국적 학생들의 6.3 운동, 10월 인민 항쟁, 려수 폭동 등 투쟁을 작품에 잘 묘사해야 한다. 인민 항쟁을 묘사함에 있어서는 인민의 투쟁 력사라는 관점에서서 그것을 심오하게 묘사해야 하며 혁명의 승리적 전망을 명확히 하면서 그 실패의 원인도 밝혀야 한다.

로동자, 농민들과 함께 청년 학생들과 혁명적 인테리들의 투쟁도 작품에 중요하게 묘사하여야 한다.

오늘의 남반부는 원쑤들의 폭압으로 말미암아 부정과 비극이 지배하는 생지옥으로 화하고 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남반부 현실을 묘사하면서 부정을 폭로하거나 비극적 정황을 묘사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반드시 자라 나는 혁명적 력량의 위대한 힘과 그들의 승리적 전망을 보여 주어야 한다.

혁명적 주제의 생활 바탕에서 가장 중요한 령역은 1930 년대의 항일 무장 투쟁과 그 시기의 혁명 투사들의 생활이다.

그것은 1930 년대의 투쟁이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뿌리이며 공산주의 투사들이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가장 훌륭한 혁명적 귀감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문학 예술은 혁명 전통의 형상화에서 일정한 창조적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아직 혁명적 대작 창작의 요구에 충분히 보답하지 못 하고 있다.

그러므로 1930 년대의 생활과 혁명

투사들을 형상화하는 데 항상 주목을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혁명적 주제의 폭을 넓혀 해방 후의 혁명 투쟁을 형상화하는 데 또한 힘을 넣어야 한다.

해방 후 우리 인민들은 혁명 전통을 계승하여 당과 인민 정권과 인민 무력을 건설하고 토지 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 개혁을 수행하였으며 3년간의 간고한 전쟁에서 미제를 타승하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으며 페허의 재'더미 우에서 오늘과 같이 사회주의를 훌륭하게 건설하여 놓았다.

특히 조국 해방 전쟁에는 로동자, 농민, 인테리, 중소 자산 계급 성분을 가진 사람 등 전체 인민이 거족적으로 참가하여 미증유의 애국주의와 영웅적 희생성을 발휘하였다. 이것은 후손 만대에 길이 빛날 위대한 공훈이다.

해방 후 오늘까지의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은 원쑤들을 반대하는 첨예한 혁명 투쟁이며 이 혁명 투쟁에 헌신적으로 참가한 전사, 애국자들은 모두다 혁명가, 투사들이다.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혁명 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자라 난 혁명가, 투사들의 대오는 해방 후의 혁명 투쟁 속에서 더욱 장성하고 확대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 군중 로선의 위대한 승리이다.

우리 문학 예술은 해방 후의 혁명 투쟁과 조국 해방 전쟁 시기의 영웅적 생활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혁명 전통이 어떻게 계승되고 발전 풍부화되였으며 또 혁명 투사들의 대렬이 얼마나 장성하고 확대되였는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해방 후의 혁명 투쟁의 불'길 속에서 성장하고 단련된 전사, 애국자들을 혁명가, 투사로 묘사하고 그들의 업적을 찬양해야 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혁명가로서의 자부심과 영예감을 북돋아 줄 것이며 그 영예와 보람을 간직하고 혁명 위업에 계속 헌신하도록 할 것이며 후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해방 후의 혁명 투쟁을 묘사하는 것은 인민들의 심장에 혁명가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안겨 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작가 예술인들은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 주제 분야에 창조적 관심을 돌려야 하며 특히 조국 해방 전쟁에서 영웅적으로 싸운 전사들과 후방 인민들을 형상화하는 데 주목을 돌려야 한다.

우리 인민의 오늘의 투쟁 뿐만 아니라 우리 인민의 과거의 민족 해방 투쟁도 형상화해야 한다.

그것은 3.1 봉기나 광주 학생 운동과 같은 애국적 투쟁을 묘사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적 투지를 안겨 주며 특히 남반부 인민 속에서 민족적 감정과 애국주의 정신을 계발할 수 있으며 이 투쟁에서 응당한 교훈을 얻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민족 해방 투쟁을 력사주의적 견지에서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우리는 그 계급적 토대와 투쟁의 전망 및 계급적 각성의 필연성을 명확히 보여 주어야 한다.

끝으로 혁명적 주제에서 중요한 분야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세계 인민들의 반제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 성원하고 열렬하게 고무하는 것이다.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과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의 애국적 운동을 고무하며 그들에게 전투적 련대성을 표시하는 작품을 더욱 활발히 창작해야 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혁명적 주제의 생활 령역은 대단히 넓다.

작가 예술인들은 이 모든 생활 령역을 주제로 하여 혁명적 작품을 많이 창작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건설을 주제로 한 작품 창작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두 주제 방향 중 어느 한쪽에도 편중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주의 건설을 주제로 한 작품은 인민 대중을 사회주의 제도의 생활력과 우월성으로 교양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선두에서 전진하고 있는 로동 계급의 훌륭한 전형들을 창조하고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 관한 테제를 받들고 새롭게 전변되는 농촌 현실을 형상화해야 하며, 자립적 민족 경제 로선의 정당성과 지방 산업의 발전 과정을 생동하게 보여 주는 작품들을 창작하여야 한다. 이 주제의 작품도 조국 통일의 기백과 혁명적 열정으로 일관되여야 할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주제로 한 작품은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남반부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혁명의 전망을 명백히 안겨 주어야 한다.

보는 바와 같이 혁명적 작품 창작에서 그 주제의 령역을 옳게 파악하고 그것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구체적 작품의 혁명성을 완전히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작품의 주제란 생활적 소재나 작가의 주관적 의도 자체가 아니고 묘사된 생활 현상을 통해서 제기된 작품의 기본 문제이기 때문이다.

주제를 원만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형상, 사건, 일화 등을 주제에 맞게 옳게 련결시키고 통일시키고 집중시켜야 한다.

작품의 사상은 묘사된 생활적 소재나 제시된 주제 자체와 기계적으로 통일될 수 없다.

생활적 소재가 좋고 주제가 옳게 설정된 경우에도 창작가의 사상적 준비가 제기한 문제를 해명할 만한 높이에 이르지 못 하거나 형상력이 부족하다면 작품의 사상을 심오하게 천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 예술인들은 생활을 심오하게 탐구하여 주제를 옳게 설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주제를 형상을 통해 심오하게 해명하여야 한다.

혁명적 작품 창작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창작적 과제는 혁명가, 투사의 전형을 창조하는 문제이다. 혁명가, 투사들은 조국의 자유 독립과 해방과 통일을 위하여 민족적,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싸운 영웅적 투사들이다.

우리는 혁명가의 전형적 성격 속에 당해 시기 우리 인민들의 리상과 념원과 지향을 훌륭하게 체현시키면서 그를

시대와 계급과 민족의 대표자로 전형화하는 동시에 생동한 인간으로 개성화하여야 한다.

혁명가, 투사들의 성격의 주도적 특질은 혁명성, 영웅성이다. 따라서 혁명가, 투사의 성격화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는 바로 성격의 영웅성과 혁명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가의 영웅적 행동과 내면 세계를 구체적인 정황과 갈등과 계기를 통해 선명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행동 묘사를 통해 영웅성을 천명하는 과정은 그 대로 성격을 밝히는 과정으로 되여야 한다. 그렇지 못 할 때에는 작품에 아무리 영웅적 행동이 잘 묘사되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심장을 사로잡을 수 없다. 그것은 거기에 성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웅적 행동을 외면적으로만 묘사하지 말고 성격의 내부적 론리에 기초하여 성격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혁명가, 투사의 생동한 성격을 창조하기 위하여 작가 예술인들은 주인공의 행동과 내면 세계를 그에게만 고유한 행동 방식과 사고 방법, 심리적 특성으로 즉 해당 성격의 론리에 맞게 묘사하고 표현하여야 한다.

혁명가, 투사의 전형을 창조함에 있어서는 그를 사상 성격적 장성 과정을 통해 형상화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우리의 작품들 중에는 장성하는 인물이 그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격 발전 과정이 선명하게 묘사되여 있지 못 한 경우들이 적지 않다. 이것은 성격 발전의 결과만을 보여 주면서 그 발전 과정을 구체적인 계기를 통해 잘 그려 주지 못 하기 때문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우여곡절로 차 있는 주인공의 생애와 그의 성격 발전 과정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여 혁명가, 투사의 고상한 풍모와 정신적 특질을 아름답게 전형화하여야 한다.

혁명가, 투사의 영웅적 성격과 혁명적 락관주의를 잘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황과 갈등과 계기들을 첨예하게 설정하고 주인공의 극적 체험과 내면 세계를 심오하게 천명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문학 예술 앞에 혁명적 작품 창작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제기되는 과업은 혁명적 대작을 창작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이 번 교시에서 특히 혁명적 대작 창작을 강조하였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가, 투사들의 전형과 그 성격 장성의 력사를 광활한 서사시적 화폭 속에 힘 있게 묘사하여야 한다. 혁명적 대작은 시대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폭 넓게 개괄하면서 시대의 흐름과 력사적 특성을 서사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시대를 시, 공간적으로 폭 넓게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주인공이나 각 계급과 계층의 대표자들을 등장시키고 성격 장성의 력사와 인간 관계를 통해서 즉 슈제트를 통해서 시대를 폭 넓게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작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대의 각 계급과 계층의 대표자들을 등장시켜 작품을 폭이 넓게 구성하여 시대와 력사적 사변의 전모를 보여 줄 수도 있고, 한 중심 주인공의 성격 발전과 그 장성의 력사를 년대기적으로 보여 줄 수도 있다. 이 년대기적 묘사가 시대에 대한 광활한 서사시적 일반화로 되기 위해서는 그 성격의 장성 과정이 당해 시기의 가장 본질적 사변들과 전형적 생활을 통하여 전형화되여야 한다.

만일 이렇게 묘사되지 못 한다면 그 주인공이 아무리 긴 생애를 통해 묘사되였다 하더라도 대작의 주인공으로는 결코 될 수 없다.

혁명적 대작 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혁명가의 전형적 성격과 그 장성 과정을 시대의 거창한 흐름을 통해 훌륭히게 전형화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혁명적 대작 창작에서 혁명가의 일생을 폭 넓게 묘사할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였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혁명가란 어떻게 자라고 어떠한 길을 거쳐 혁명에 나서며 또 어떻게 싸우고 어떠한 우여곡절과 간난신고를 거쳐 승리하였는가를 보여 줌으로써 혁명할 의욕을 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혁명가의 일생이란 간고하며 투쟁의 길에는 또한 우여곡절과 간난신고가 많다.

이 난관과 시련을 거쳐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혁명 투사의 생애와 운명을 통해 명확히 보여 주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혁명가의 간고하면서도 영광에 찬 행로를 형상화함으로써 대중의 심장에 혁명의 씨앗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 줄 수 있는 전형적 사실들이 얼마든지 있다.

혁명가, 투사의 일생을 묘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혁명 투사들의 일생을 항일 투쟁 시기부터 오늘까지의 긴 과정을 통해 보여 주는 것이다. 우리 혁명 투사들은 김 일성 동지의 령도 하에 참으로 간고하면서도 보람 있는 길을 걸어 왔다.

혁명 투사들은 일제를 반대하여 무장 투쟁을 하고 지하 투쟁도 진행하였으며 그들 중에는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감옥 생활을 한 사람도 있다.

그들은 장기간의 감옥 생활을 하고도 해방을 맞이하여 새 조국에서 보람 있게 투쟁하고 있다.

그들은 해방 후 당과 인민 정권을 건설하고 토지 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 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였으며 전쟁 시기에는 락동강까지 나갔다가 후퇴의 어려운 시련을 뚫고 승리하였고 오늘은 조국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혁명가의 이 영광에 찬 긴 력사적 행로를 우여곡절과 시련의 극복 과정을 통해서 보여 준다면 얼마나 훌륭한 혁명적 귀감으로 될 것이며 사람들의 심장에 얼마나 강력하게 혁명적 열정을 불러 일으킬 수 있겠는가!

또한 평범한 근로 인민의 아들이 당의 따뜻한 품'속에서 어떻게 자라 나고 조국 해방 전쟁에서 어떻게 영웅주의를 발휘하며 투사로 성장하는가 하는 것을 전선과 후방의 넓은 생활 화폭을 통해 보여 주는 대작도 창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방 전부터 간고한 생활을

하던 주인공이 해방 후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체포되여 감옥 생활도 하고 6.28에 해방되여 다시 투쟁하는 남반부 투사를 또한 묘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각이한 처지와 개성과 의식 정도를 가진 혁명가를 그의 일생과 성격 장성 과정을 통하여 다양하게 전형화할 수 있다.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 인테리들을 그의 일생을 통해서도 그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투쟁과 운명을 어느 한 력사적 발전 단계에서도 집중적으로 형상화해야 한다.

즉 작가 예술인들은 1930 년대, 해방 후 민주 건설 시기,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전후 복구 건설 시기, 사회주의 개조가 완성된 이후 시기 등 각이한 력사 발전 계단마다에서 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그의 투쟁과 성격을 전형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남반부 인민의 투쟁과 혁명가들의 생활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도 그대로 해당된다.

10월 인민 항쟁의 주인공이나 4.19의 투사나 6.3 투쟁의 대표자들을 생동하게 성격화할 수 있고 또 하여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 앞에는 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하며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문예 작품들을 창작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가의 일생을 전기식으로 기록할 것이 아니라 전형화해야 하며 원형에 기초하는 경우에도 전형을 창조하여야 한다. 예술적 전형은 원형의 복사나 기록이 아니다.

원형이 실재한 인물이라면 전형은 예술가의 예술적 사색과 허구를 통해서 창조된 예술적 형상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원형에 구애되지 말고 혁명 투사들의 생동한 자료들을 마음 대로 취사 선택하여 새로운 전형을 창조하여야 한다.

혁명적 대작 창작에서 장편 소설과 영화 예술은 특히 중요한 쟌르이다. 그것은 이 쟌르들이 대작을 창작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그릇들이며 또한 대중에 대한 가장 강력한 감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편 소설과 영화 예술 분야에서 우선 새로운 혁명적 대작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장편 소설이나 영화 뿐만 아니라 연극, 가극, 무용극 등 무대 예술 분야를 포함한 모든 문학 예술 분야에서 혁명적 대작을 창작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인민 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투쟁에 궐기시킴에 있어서는 혁명 가요와 서정시와 전투적 미술 작품들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논다. 특히 혁명적 열정과 전투적 기백과 혁명적 락관주의로 일관된 혁명 가요를 많이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학, 영화, 음악, 연극, 무용, 조형 예술 등 각 분야에서 혁명적 대작과 전투적 소형식의 작품들을 더욱 많이 창조하여야 한다.

각 예술 형태들과 쟌르들은 자기 분야에서 혁명적 주제의 어떤 생활 령역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으며 무엇에 걸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혁명적 작품과 혁명적 대작 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문예 창작 사업을 대중적 운동으로 전개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군중 자신이 자기의 생생한 투쟁 경험과 자료에 기초하여 혁명적 작품을 왕성하게 창조하도록 지도하고 고무하고 도와 주어야 한다.

혁명가, 투사의 훌륭한 전형을 성격화하며 혁명적 작품들과 혁명적 대작을 많이 창조하기 위해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적으로 동원되고 혁명적 작가 예술인으로서의 사상적 준비를 갖추는 문제가 선결적 요구로 제기된다. 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나라 혁명의 전망과 임무를 깊이 인식하고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하여 김 일성 동지의 강령적 교시를 관철함으로써 사상 예술적으로 우수한 혁명적 작품을 많이 창작하여 당에 의하여 육성되고 단련된 붉은 작가 예술인으로서의 당성을 유감 없이 발휘하자.

혁명적 작품은 오직 혁명적 작가 예술인에 의해서만 창조될 수 있다. 투사의 내면 세계를 체득하지 않고서는 투사의 고매한 정신과 성격을 형상화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적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모든 작가 예술인들이 혁명가, 투사로 되여야 하며 혁명가적 수양을 깊이 쌓아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이 혁명가, 투사로 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산주의적 세계관을 확립해야 한다.

세계관은 그의 사상과 행동을 지도하며 그의 창작 방향과 작품의 사상적 질을 규정한다.

그러므로 모든 작가 예술인들은 공산주의적 세계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우리 당 정책을 심오하게 연구하여야 하며 맑스-레닌주의 고전들과 김 일성 동지의 로작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사상적 수양을 쌓기 위해 혁명 투사들과 로동 계급의 고매한 혁명 정신을 배워야 하며 조직 생활과 집단 생활을 충실히 하여 당성을 부단히 단련하여야 한다.

혁명가, 투사의 정신 세계를 체득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혁명가들의 생활을 심오하게 연구하며 로동 계급을 비롯한 인민 대중 속에 깊이 들어 가 생활을 직접 체험하여야 한다.

생활에 대한 심오한 체험과 지식을 소유함으로써만 당과 혁명이 요구하는 혁명적 작품과 혁명적 대작을 창작할 수 있다.

생활에서 혁명적인 것을 독자적으로 발견할 줄 모르거나 생활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사고와 시대에 대한 일가견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에는 혁명적 대작을 도저히 창작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은 자기의 정치적 식견을 부단히 높이고 사회와 자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완강

히 노력하여야 한다.

작품의 혁명적 내용은 그에 상응한 형식의 완벽성을 요구한다.

우리 문학 예술을 한 계단 높이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예술적 기량과 형상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아무리 내용이 혁명적이고 그것이 아무리 대작의 골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상성이 부족할 때에는 혁명적 대작으로 될 수 없다.

모든 작가 예술인들은 자기의 창작적 기량을 높이기 위하여 내외의 고전들과 자매 예술을 넓고 깊게 연구하여야 하며 부단한 탐구와 꾸준한 숙련을 통하여 예술적 기교를 련마하고 형상성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당 단체들과 문학 예술 기관들은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심오하게 연구하고 그 실행 방도를 집체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며 앙양된 창조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적 작품 창작에로 조직 동원하며 혁명적 문학 예술 운동을 힘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가, 투사의 높은 자각과 보람을 간직하고 남반부 인민의 해방과 조선 혁명의 완수를 위하여 모두다 혁명적 작품 창작에 힘을 집중하자!

체육을 전 군중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김 기 수

1

사회에서 가장 귀중한 재부로 되는 것은 인간이며 인간의 정신적 및 육체적 능력이다. 어떠한 물질적 부도 인간의 창조적 능력을 대신할 수는 없다. 사회의 풍부한 경제적, 문화적 재부들도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발달된 인간—대중에 의하여 창조되며 한 나라의 국력도 흥망 성쇠도 결국 그들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유하고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려면 풍부한 물질적 부를 창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건전한 지'적 능력과 체력을 가진 조화롭게 발전된 인간으로 육성되여야 한다. 건전한 지'적 능력과 더불어 튼튼한 체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보람찬 과업을 감당할 수도 없고 로동의 참된 기쁨을 체험할 수도 없으며 문화의 진정한 향유자로도 될 수 없다.

이로부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체육을 전 인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혁명 발전의 본질적 요구로 되며 나라의 중요한 시책의 하나로 된다.

우리 인민은 간고한 투쟁을 통해서 훌륭한 경제를 건설하였고 찬란한 문화를 이루어 놓았다. 특히 7개년 계획의 전반기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결과에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는 반석으로 다져지고 사람들의 생활은 더욱 유족해지고 있다.

우리가 이루어 놓은 오늘의 성과 속에는 당의 호소를 받들고 하나의 사상 의지로 단결된 인민의 높은 혁명 정신과 더불어 무쇠 같이 단련된 민족적 기질에서만 발휘될 수 있는 육체적 능력이 또한 스며 있다.

우리 인민이 지나 온 투쟁의 길은 간고하였고 이미 넘어 온 고지들도 류례없이 험준하였지만 우리 앞에는 더욱 높은 고지들이 우뚝 솟아 있다. 보람찬 7개년 계획의 정점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또다시 10대 과업의 고지를 넘어 서야 한다. 그리 하여 피땀으로 세워 놓은 사회주의 건설의 기둥을 더욱 보강하고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을 더욱 실'속 있게 꾸리며 북반부의 민주 기지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는 성스러운 위업을 성취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모든 과업을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분별 없는 책동이 계속되는 조건 하에서 한 손에는 마치를, 다른 손

에는 총을 쥐고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국의 현실은 우리들에게 계속 긴장된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과업을 걸머지고 긴장된 투쟁의 길을 끝끝내 뚫고 나아가려면 참으로 전체 인민이 사상 의지면에서 뿐만 아니라 육체적 능력으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튼튼히 단련된 체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체육 활동을 전 인민적, 군중적으로 발전시켜 모든 사회주의 건설자들의 신체를 전면적으로 단련시키는 것은 조국의 현 정세와 관련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또한 오늘 전체 인민이 체육 활동에 참가하는 높은 수준의 체육 문화는 나라의 경제적 발전과 인민의 정신적 및 지'적 능력의 상태를 보여 주는 하나의 징표로도 된다. 특히 높은 체육 기술은 그 나라의 위신과 권위를 대외적으로 시위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지난 기간 우리 당에 의하여 육성된 붉은 체육인들은 여러 차례의 국제 무대에 진출하여 공화국의 위신을 훌륭히 떨치였고 그것을 통하여 평화 애호 인민들과의 친선 단결을 일층 공고히 하였다. 우리 체육인들의 빛나는 성과들은 특히 싸우는 남조선 형제들과 재일 동포들에게 커다란 고무적 힘을 주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미 도달한 기술 수준을 더욱 높이며 전반적 종목에 걸쳐서 국제적 수준에 도달해야 할 절실한 필요를 느끼고 있다.

그런데 이런 체육 기술의 발전은 오직 전 인민적 체육 활동의 튼튼한 토대에서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 군중체육은 체육 기술을 해결하는 기본이며 근원으로 된다.

우리 당의 인민적 체육 정책은 바로 우리 사회 발전의 이와 같은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22일에 또다시 체육 활동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강력히 전개할 데 대하여 간곡히 말씀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는 우리 나라 혁명 발전의 절실한 요구와 조국의 먼 앞날을 내다 보신 원대한 구상에 근원을 두고 있다.

당은 체육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언제나 전체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하며 그들의 신체를 무쇠 같이 단련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떠메고 나아갈 믿음직한 역군을 길러 내는 것을 첫째 가는 목적으로 삼아 왔다.

그러므로 일찌기 김 일성 동지는 우리의 체육이 몇몇 개인 선수를 만들어 내거나 낡은 사회에서처럼 소수자들의 유흥'거리로 되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조선의 체육은 참으로 조선의 자주 독립과 민주주의적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건국 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서 수행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로부터 우리 당 체육 정책의 기본은 전체 인민들 속에서 체육 활동을 대중화하고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인민의 물질적 복리 증진과 문화 생활 향상을 항상 념려하는 우리 당 활동의 근본적 리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당의 이와 같은 체육 정책은 동시에 우리 나라에서 체육 사업이 사회주의적 문화 혁명의 중요한 부문으로 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인민들의 물질 문화 수준이 급속히 향상됨과 아울러 더욱 튼튼하고 조화된 몸으로 깨끗하고 문화적으로 사는 풍습이 절실히 요구된다. 체육은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사는 한 개 생활 방식이며 사람들의 문명성의 한 표현이다.

그러나 우리 인민이 과거 착취 계급들과 특히 일제의 억압 밑에서 빛을 잃고 살 때에는 이러한 문명 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고된 로동에 시달리면서 신체의 기형적 발전과 쇠퇴를 면치 못 하였다.

당은 해방 후 인민적 체육 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전체 근로자들의 건강을 최대한으로 증진시켜 온 나라에 한 사람의 허약자도 없이 하며 전체 인민이 튼튼하게 전면적으로 발전된 몸으로 사회주의적 문화를 마음껏 향유하도록 하는데 최대의 관심과 배려를 돌려 왔다.

당은 이상과 같은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방 직후부터 체육 사업에 대한 유일적인 국가 지도 체계를 확립하고 지도 간부를 대대적으로 양성하며 각종 체육 시설을 복구 신설하는 데 많은 자금을 배당하면서 체육 사업의 발전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추진시켜 왔다.

2

당의 인민적 체육 정책은 우리 나라의 각이한 생활 분야와 단위들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우선 각급 학교들은 그 가장 중요한 초소로 되고 있다.

인구의 4 분의 1이 망라되여 있는 우리 나라의 각급 학교들은 매년 수십만의 학생들을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 진출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의 체육 교육과 교양의 완성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 분야에서의 체육 향상에 크게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 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장래의 역군이다. 그들이 지덕체를 겸비한 준비된 일'군으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것은 나라의 미래의 발전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의 전반적 체력을 향상시키며 혁명이 요구하는 준비된 인재를 길러 내는 데 있어서 학교 체육 사업은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이와 같은 사실을 강조하면서 전국 교육 일'군 열성자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과학과 기술을 실지 사업에서 써 먹기 위하여서는 육체가 튼튼해야 한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신체가 허약해서 만날 앓기만 하면 그가 국가를 위하여 아무런 유익한 일도 할 수 없을 것은 뻔한 사실이다》.

청소년들에 대한 체육 교육의 이와 같은 중요성에 비추어 당은 처음부터 학교 체육 사업에 중요한 관심을 돌려 왔다. 청소년들의 년령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적 대책을 강구하며 전문적으로 양성된 많은 체육 교원들을 각급 학교에 배치하며 체육 교육과 교양을 밀접히 결부시키고 학생들의 육체적 발육과 지'적 발전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과학 사상성을 높이는 등 학교 체육 사업의 발전에 기울인 당의 노력은 실로 막대하다.

그리 하여 우리 당의 인민적 체육 정책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날로 개화 발전하는 학교 체육 사업에서 여실히 증시되고 있다.

이 부문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은 무엇인가.

우선 체육 사업을 부차시하던 오랜 관습을 타파하고 그것을 학교 교육과 학생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는 옳은 관점이 확립된 사실이다. 각급 학교들에서 체육 사업을 학교 교육과 교양의 불가분의 측면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다.

북청 성남 중학교를 비롯해서 천리마 북청 고등 원예 전문 학교, 정주 동문 중학교, 재령 중학교들은 이에 대한 모범적인 실례로 된다.

특히 북청 성남 중학교 교원 집단은 학생들을 지덕체가 겸비한 훌륭한 역군으로 육성할 데 대한 당 정책을 정확히 관철하는 데서 높은 창발성과 독창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체육 사업이 전체 교원 집단과 학생들의 의무적인 일과로 되여 주 1 회씩 하는 《체육의 날》만 하더라도 지난 11월 15일까지 200 차나 운영되였다.

이렇게 체육 사업이 정상화되고 있는 많은 학교들에서는 전체 교원이 체육 수업을 자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오르고 있다.

그리 하여 체육 교육과 교양은 학생들의 높은 지'적 발전을 보장하며 규률 있고 질서 정연한 생활 기풍을 확립하며 집단주의 정신과 자립적 활동성을 높이며 그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훌륭한 역군으로 길러 내고 있다.

학교 체육 사업에서 구현되고 있는 인민적 체육 정책의 생활력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성과는 체육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 속에서 자력 갱생의 훌륭한 기질이 배양되고 있는 사실이다.

천리마 북청 고등 원예 전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체로 각종 교편물과 체육 기자재를 제작하였으며 북청 고등 경공업 학교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써온 력학적 원리를 도입하여 철 쪼박으로 보기 좋고 견고한 체육 기재를 갖추어 놓았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학교들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앞으로 어떠한 어려운 사회적 과업이라도 능히 감당해 낼 수 있게 전면적으로 준비된 일'군으로 육성되고 있으며 우리의 학교들은 나라의 체육 발전을 위한 믿음직한 기지로 되고 있다.

당의 인민적 체육 정책을 전면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또한 생산 직장, 사무 기관, 농어촌들도 중요한 대상으로 되여 왔다.

군중 체육 사업은 그것을 생산 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일상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그들의 육체적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그들이 더 많이 문화 생활의 혜택을 받게 하며 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데로부터 당은 모든 근로자들의 년령, 성별, 체질과 취미, 직종에 맞는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적 조건과 대책을 강구하여 왔다. 특히 근로자들을 위한 광범한 휴양 조직을 비롯해서 그들이 작업 과정에서 신체에 받는 영향을 바로 잡고 육체적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각종 생산 체조와 인민 체력 검정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에 깊은 관심을 돌려 왔다.

또한 모든 직장들에서 다양한 체육 경기들과 생산 경기들을 조직하여 근로자들의 특기와 소질을 발양하게 하는 한편 새로운 생산 기록을 달성하게 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 왔다.

그리 하여 오늘 로동 직장들에서의 체육은 생산과 밀접히 결부되면서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전국의 공장과 기업소, 협동 농장들에는 작업 조건과 생산 특성에 알맞는 체육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으며 근로자들은 작업 전후와 휴식 시간을 리용하여 다양한 체육 경기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많은 직장들에서 종전에 사회 보장을 받던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경로동에 참가할 수 있게 되였으며 질환으로 인한 결근자들의 수는 감소되고 생산은 매월 높아 가고 있다.

특히 북청 방사 공장과 식료 공장을 비롯해서 일부 녀성 종업원들이 많은 생산 직장들에서 예술 체조를 광범히 보급하고 매일 아침 예술 체조로 보건 체조를 대신하고 있는 것은 군중 체육의 높은 발전 수준을 보여 주는 중요한 현상의 하나로 된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 속에서는 또한 치료 체육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찬물 마찰, 건포 마찰, 찬물 맞기, 일광욕, 아령 등 직종과 생활 조건에 알맞는 각종 치료 체육이 보급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북청군에서만도 300여 명이 치료 체육을 통하여 종전의 질환을 고치고 건강한 몸으로 생산 활동에 참가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광범한 대중적 체육 활동은 집단 체조의 발전에서도 잘 증시되고 있다. 청소년 학생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자들 속에서 체육 활동이 활발해지고 체육 문화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데 토대해서 우리 나라에서는 수만 명이 참가하는 집단 체조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였다.

최근 년간에 중앙과 도, 시, 군들에서 창작 출연한 집단 체조들은 우리 나라 체육 문화의 높은 발전 수준과 체육을 통하여 조화적으로 단련된 우리 청소년 학생들의 조직성, 규률성, 집단주의의 높은 기능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집단 체조의 발전에 있어서 1958년 말에 김 일성 동지께서 사상적으로도 좋고 예술적으로도 좋고 체육적으로도 좋으며 출연하는 청소년들에게나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교양적 의의가 큰 집단 체조를 광범히 발전시키라고 하신 교시는 큰 의의를 갖는다. 이 교시가 있은 후 1959년에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1961년에 《로동당 시대》와 같은 훌륭한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특히 《로동당 시대》의 창작과 출연은 우리 나라 집단 체조의 체계를 확립하고 그 지도 일'군을 집단적으로 대량 육성하는 데 거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그 후 집단 체조 발전의 토대로 되였다. 이 작품의 체계와 수법과 창작 경험을 토대로 1963년 혜산시에서 창작 출연한 《로동당의 기'발 따라》는 배경대 형상에서 또다시 새로운 체계와 수법을 개척하였다.

이리 하여 우리 나라 집단 체조는 거븐

운동장에서 출연하는 부분과 배경대의 출연에서 세계적으로도 집단 체조의 새 경지를 열어 놓았다.

그 후 1963년의 《천리마 조선》, 금년 강계시에서 출연한 《독로강반의 새 노래》, 신의주에서 출연한 《압록강반의 새 노래》, 평양시에서 출연한 《천리마 조선》 등의 작품들은 그 사상 예술성에서 뿐만 아니라 체조적 구상의 대담성과 높은 기교에서, 배경대 형상에서 다 국제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걸작으로 된다.

중앙과 도들에서 이루어진 풍부한 경험을 기초로 오늘에 와서는 북청군, 염주군을 비롯한 많은 군들에서 수천 명씩 참가하는 집단 체조를 창작 출연하고 있다. 금년에 북청군에서는 1만 2,000 명이 참가한 《황금의 북청'벌》을 성과적으로 출연하였다. 특히 북청 고등 경공업 학교에서 전교생이 출연한 봉화 집단 체조는 그 형식의 독창성과 대담한 창조적 발기로 하여 매우 경험적인 것으로 되고 있다.

집단 체조는 비단 평지에서 뿐만 아니라 바다, 얼음, 눈 우에서 출연하는 형식도 발전하고 있다. 1962년 장진에서 3,000 명이 참가한 스키 마스껨, 함주군에서 3,000 명이 참가한 스케트 마스껨, 1962년 신포에서 3,000 명이 참가한 해상 마스껨을 비롯해서 그 후 이러한 형식은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

체육의 이와 같은 대중적 발전은 우리 나라 체육 기술 발전의 믿음직한 토대로 되였으며 후비 선수 양성의 풍부한 원천으로, 저수지로 되였다.

몇 해 전까지만 하여도 로동자, 농민, 학생, 군인이였던 사람들이 오늘은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공훈 체육인으로, 체육 명수로 국제 기록을 돌파하고 세인을 놀라게 한 사실들은 수다하다. 해방 전에는 체육이란 알지도 못 했던 사람들이 오늘 중앙급 경기에까지 출전하여 사람들의 격찬을 불러 일으킨 사실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체육에 대한 대중의 열의가 높아지고 관심이 커진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 속에서 최근 년간 우리 나라 선수단들의 기술 수준도 많이 발전하였고 선수 대렬도 급속히 확장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붉은 체육인들은 최근 년간에 수다한 종목에 걸쳐서 명수 기록과 공화국 기록을 연신 갱신하였고 여러 종목의 세계 기록을 거듭 갱신하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우리 붉은 체육인들은 제 1차 가네포와 여러 차례에 걸치는 국제 경기들에 출전하여 민족의 슬기를 떨치고 공화국의 영예를 대외적으로 더욱 빛내였는바 이는 모두가 우리 당 체육 정책의 생활력을 말해 주는 것이다.

3

당의 체육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룩한 성과는 물론 자랑스러운 것이다. 해방 후 거의 아무런 토대도 못 가졌던 락후한 상태에서 오늘의 성과를 이루어 놓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에는 전체 당원들과 간부들이 당의 호소를 받들고 기울인 많은 노력이 깃들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우리 혁명 발전의 견지에서 보나 사회주의 현실이 요구하는 응당한 수준에서 보나 우리의 체육 사업은 결코 다 만족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적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체육이 여전히 생활화되고 있지 못 하며 적지 않은 녀성들과 년장자들이 여기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체육 사업을 행사식으로 혹은 선수 본위로만 진행하는 현상도 없지 않다.

우리 당의 인민적 체육 정책의 본질은 어데까지나 전체 인민을 체육 활동에 참가시키고 모든 곳에서 그것을 정상화함으로써 온 나라에 한 사람의 허약자도 없이 하자는 데 있다. 만약 일'군들이 이런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 한다면 기관, 기업소들에서 로동 특성으로 생길 수 있는 허약자들이나 병약자들을 없애지 못할 것이며 단조롭고 불규칙적인 생활 습성에서 사람들을 끌어내지도 못 할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우리는 아직도 많은 일을 해야 하며 안목을 더욱 넓혀서 우리 사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인민적 체육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되는가.

이것을 위해서 우선 중요한 것은 체육에 대한 모든 지도 일'군들의 태도와 관점을 옳게 세우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일'군들 모두가 체육에 대한 철저한 태도와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혹 경우에 사람들은 체육이라고 하면 낡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흥'거리로 하던 것 만큼 밖에 더 생각지 못 하는 일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체육을 그 어떤 한가한 때나 하는 일로, 젊은 사람들이나 또는 특별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만이 하는 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데로부터 체육이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거나 로동이 체육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 그릇된 생각까지 품게 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지도 일'군이 이런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생산 기업소들에서 직업적 조건으로 생길 수 있는 허약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되는 2~3 분 정도의 업간 운동을 조직해 주거나 아침 간단한 보건 체조와 달리기를 진행하는 것조차 정상화하기 곤난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는 사람들의 사업에서 큰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의 사상 의식과 함께 몸이 건전해야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초보적인 상식이다. 그러므로 건강에 대한 배려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에서 가장 큰 배려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 사업에 대한 지도 일'군들의 책임성과도 관계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도 일'군들이 몇 마디의 말로써가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정한 휴식과 운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해 주는 데 있다. 특히 사회가 전진함에 따라 경제가 고도로 발전하여 생산이 전문화, 기계화되고 사람들이 한 가지 직종에서 오래 일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자연히 상당한 동작의 운동이 필요하게 된다. 단조로운 동작의 반복은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발전에 지장을 준다.

그러므로 체육은 발전된 사회의 문명의 요구로서, 그것을 옳게 조직해 주고 정상화하여 일상 생활의 관습으로 전환

시키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크나 큰 배려의 표시로 된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일제 식민지 생활 처지를 겪었기 때문에 체육이 사람들의 생활 상 관습으로 되여 있지 못하였다. 이런 형편에서 사람들의 락후한 관습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는 간부들이 솔선 모범을 보이고 대중을 체육 활동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인입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녀성들과 년장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그리 하여 기관, 기업소, 협동 농장들에서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체육 시설을 완비하고 누구나 다 체육 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하며 달리기, 강행군, 장애물 돌파 등 사람들을 곤난 극복에로 단련시키는 다종다양한 종목을 선정하고 그것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체육 핵심을 육성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망라시키며 매일 계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체육을 천리마 작업반 운동과 밀접히 결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체육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일상시에는 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경기를 앞두고 깜빠니야식으로 내밀거나 사람들을 무원칙하게 생산에서 유리시켜 승부 본위로 하거나 몇몇 선수 본위로 하는 체육 사업은 인민적 체육 정책을 옳게 실현하는 태도가 아니다. 이런 것은 사람들의 건강에 리익을 주지 못하며 생산에도 지장을 준다. 우리의 체육은 어데까지나 사람들의 건강 증진에 복종되여야 하며 생산 활동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하며 생활 문화와 결부되여야 한다.

인민적 체육 정책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학교 체육에 아직 남아 있는 결함들도 퇴치되여야 한다.

아직도 적지 않은 학교들에서 체육 교수를 정확히 진행하지 않으며 그 과학 사상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교수가 학생들의 년령적, 심리적, 교정 별 특성과 육체 발육 상의 특성에 맞게 교육학적 원칙에서 진행되지 못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외 체육 활동에서의 산만성도 완전히 시정되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체육 교육을 일부 전문 교원들에게만 맡기고 전 학교적인 사업으로 추진시키지 못 하는 데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이다. 학교 체육 사업이 전교적인 계획으로, 전체 교원 집단의 일치한 관심사로 되지 못 할 때 과외 시간에 잡다한 회의들이 조직되는 현상이 생기며 학생들에게 과외 체육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못 하게 되는 것이다. 더우기 몇몇 체육 교원의 노력만으로 체육 교육을 교양과 밀접히 결부시키는 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수 없다.

학교 체육 교육을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려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학교들에서 체육 사업이 전 교원 집단의 일치한 관심 속에서 진행되게 하여야 한다. 그리 하여 전국의 중학교들은 북청 성남 중학교 수준에, 기술 학교 이상은 천리마 북청 고등 원예 전문 학교 수준에 도달하며 북청 학교들에서 달성한 훌륭한 성과들을 적극 도입 일반화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학교들에서 주 1 회 정도의 《체육의 날》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과외 체육을 달리기, 높이 뛰기, 넓이 뛰기, 체조를 비롯하여 인민 체력 검정 종목에 중심을 두고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험은 중학교에서는 과외 종합 체육을 매일 한 시간 정도로 하며 기술 학교와 대학에서는 학교 실정에 맞게 30 분씩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과외 종합 체육은 청소년 학생들의 특성과 학교 시설을 참작하여 흥미 진진하게 종목과 절차를 선정하고 교원들의 지도 하에 학생들의 자립적 활동으로 전개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체육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모든 교원들이 체육 수업을 자립적으로 담당 진행할 수 있게 하며 교장을 비롯한 전체 교원 집단이 체육 사업을 틀어 쥐고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체육 교육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보다 완성된 체육 교수 요강과 그 진행을 방조하기 위한 완성된 참고서가 시급히 제시되여야 하며 실제로 지덕체의 결합을 실현할 수 있게 과정안들을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인민적 체육 정책의 관철을 위해서 다음으로 제기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보급되고 있는 치료 체육을 적극 장려하고 대중화하는 문제이다.

치료 체육은 병 치료에서 소극적인 안정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은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의료 일'군들은 환자에게는 약만 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릇 인식하면서 약물 치료와 치료 체육을 적절히 배합할 데 대한 문제를 크게 생각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치료 체육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과 도, 시, 군, 리에 이르기까지 병원과 진료소들에 치료 체육실을 꾸리고 치료 체육 방법을 광범한 군중 속에 보급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체 인민을 체육 활동에 참가시킬 데 대한 당의 구상은 원대하다.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문의 열성만으로써는 안 되며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사회 단체들이 자기 부문을 실제로 책임 지고 사업을 조직하며 지도 일'군들이 그 앞장에 서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 하여 전반적 체육 종목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누구나 다 한 종목 이상 체육 활동에 관습되여 문명한 생활을 하게 하며 전면적으로 단련된 육체의 소유자로서 지덕체를 겸비한 일'군으로 되게 하자.

남조선의 사회상과 실존주의 철학

리 주 석

오늘 남조선에는 부르죠아 반동 철학 조류의 하나인 실존주의 철학이 널리 퍼져 해독적 작용을 놀고 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죽음의 철학》으로서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인민 대중의 혁명적 진출에 질겁하여 공포와 절망, 비관에 빠져 있는 현대 부르죠아들, 멸망하여 가는 자들의 기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 철학은 앞날의 희망, 사회 생활과 사회 개혁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대중을 리탈시키며 로동 계급의 계급성, 계급 투쟁을 말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반동적이며 반맑스주의적인 철학 조류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실존주의 철학은 정치 경제적 위기와 혼란이 심각화되고 로동 계급의 혁명적 진출이 강한 나라들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이다.

실존주의 철학이 남조선에 널리 퍼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사정과 관련된다.

오늘 남조선은 근 20 년 간에 걸치는 미제의 식민지 통치와 그 주구들의 반인민적 매국 통치로 인하여 정치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이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대중적인 빈궁과 기아가 만성화되고 있다. 남조선에서 정치 경제적 위기는 맑스-레닌주의와 그것이 산 현실로 된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에 고무된 인민들의 강력한 혁명적 진출에 의하여 더욱 촉진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로 말미암아 미제와 그 주구들은 《앞에는 함정, 뒤에는 절벽, 서 있는 지점은 무너져 가는》 궁지에 빠지고 있다.

더욱 헤여 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빠져 절망과 공포, 불안 속에서 갈피를 찾지 못 하게 된 남조선 통치배들은 인민들의 앙양되는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한편 인민들의 이목을 딴 데로 돌리며 계급 의식을 말살함으로써 자기들의 출로를 찾으려 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목적 밑에 그들은 실존주의 철학을 류포시키는 데 적극 매달리고 있다.

실존주의 철학은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 통치를 변호하는 중요한 사상 리론적 무기로, 맑스-레닌주의를 반대하는 《반공》 수단으로 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실존주의 철학의 반동적 본질을 철저히 폭로 비판하는 것은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이 추구하고 있는 반동적인 사상, 문화 정책의 진의도를 드러내며 남조선 인민들의 계급적 의식을 더욱 제고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실존주의 철학은 인간이 사회 계급적 관계와는 상관 없이 오직 고독하게 존재한다고 보면서 인간의 감정이나 기분, 체험 등 정신적 《존재를》 고찰하는 주관 관념론 철학의 변종이다.

이 리론의 제창자들에 의하면 인간은 사회와는 관계 없이 고독하게 존재하면서 현재만을 가지고 죽음에로 가는 로정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인간 존재》 상태이며 《실존》이다.

실존주의자들에 의하면 《실존》이란 스스로 생각하고 바라며 스스로 만드는 《자각적 존재》요, 고독하게 의식하는 《인간 존재》이다.

그들은 이러한 주관적인 《실존》의 개념이 인간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인간 이외의 돌과 나무, 짐승 등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죽음을 의식하지 못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실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실존》의 중요한 징표는 개별적인 고독한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기분, 체험 등이다.

실존주의자들은 《실존》을 인식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언명한다.

이 신비로운 감정이나 기분의 체현자인 《실존》은 객관적 현실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자아》에게 의식되고 지각되는 이외의 객관적 존재의 인식을 부정하며 《자아》가 없이는 객관적 존재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관주의와 비합리주의를 설교한다.

실존주의자들은 이러한 리론으로부터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 상태》를 규정하고 있다.

《실존》은 공포, 절망 상태에 있고 죽음과 무(無)의 심연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인간 존재 상태》를 그들은 마치 전 인류의 보편적인 사실처럼 묘사하고 있다.

실존주의자들의 이러한 리론은 완전히 꾸며 낸 것이며 황당무계한 것이다.

현실에서 생활하는 구체적인 인간은 사회와 떨어져서 살 수 없으며 어느 한 계급이나 사회 관계를 떠난 그 어떤 고립된 《인간 존재》란 있을 수 없다.

인간이란 사회적 관계의 총체이다.

사회 관계 속에 있는 구체적 인간은 자기의 미래를 사랑하며 보람찬 새 생활을 지향하여, 현존 사회의 불합리성을 개혁하기 위하여 투쟁을 통해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 나간다. 그들은 자기의 실천적 활동을 거쳐 미지의 것에서 새로운 것을 인식하며 그 경험에 기초하여 보다 높은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 의식적 활동을 전개한다.

객관적 현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결국 실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실존》이란 것은 객관적 세계와 사회에서 고립된 고독한 개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바라는 《존재》이며 일정한 기분(氣分)과 감정을 가지고 《자각》하는 주관적인 정신적 《존재》에 불과하다.

따라서 죽음, 절망, 공포, 불안 속에서 허덕이는 《인간 존재 상태》란 실존

주의자들이 만들어 낸 《인형》에다 접에 질린 양키들과 그 주구들의 사상 감정을 불어 넣은 죽어 가는 부르조아지의 화신에 불과하다.

이런 날조된 실존주의 철학이 남조선에 조성된 사회 정치적 위기를 어떻게 변호하며 그 반동성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살펴 보자.

❊ ❊

남조선에 퍼지고 있는 실존주의 철학의 반동성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죽음》을 찬양하면서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를 주입시키는 데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실존주의자들에 의하면 불안과 죽음, 절망이 인간의 《근본 존재 상태》인 만큼 보다 훌륭한 새 생활 창조를 위한 인민들의 지향과 투쟁이란 무의미한 것이며 인간은 어차피 죽어야 할 운명을 지니고 있는 만큼 삶에 대한 리상도, 가치도 생각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을 완전히 외곡한 것이다. 새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지향과 리상은 그들의 계급적 처지와 사회 제도에 따라 전혀 다르게 제기된다.

압박 받고 착취 당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근로 대중은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 제도를 희망하면서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며, 또 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학정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들에게는 공화국 북반부를 래일의 희망으로, 등대로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있으며 미래가 있으며 지향이 있다.

또한 공화국 북반부에서와 같이 이미 착취와 억압이 완전히 청산되고 인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아무러한 근심 걱정 없이 보다 높은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것을 하나하나 앞당겨 나가고 있다.

오직 사람들의 등'살에 붙어 살면서 인민들의 고혈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들만이 미래에 대한 벅찬 희망과 리상을 가질 수 없다. 그들 앞에는 항상 자기 재산을 잃을 것 같은 불안, 인민 대중의 혁명적 진출로 언제 운명이 결정될지 모르는 공포, 래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매개 사람들과 계급의 희망과 지향, 리상은 그가 속한 계급과 사회 제도의 성격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의 《근본 존재 상태》를 그가 속한 계급적 처지와 사회 제도의 성격에는 관계 없다는듯이 설교하면서 죽음을 찬미하고 있다.

그들은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이른바 허무의 《초월》이니, 죽음에 대한 《대결》이니, 불합리에 대한 《반항》이니 하면서 죽음과 《대결》하는 것은 《죽음을 외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본질을 찾아 죽음의 참뜻을 아는 데》 있으며 이 《대결》은 행동으로써 나타나서는 결코 안 된다고 떠벌리고 있다.

실존주의자들의 론리 대로 한다면 남조선 인민들은 자신들을 기아와 빈궁 속에 몰아 넣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투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착취와 압박, 살인, 방화, 략탈 만행을 감행한다 하여도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그 대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것은 결국 실존주의자들이 부르짖고 있는 《대결》이니, 《반항》이니 하는 것이 미제와 그 주구들의 만행을 합리화하고 남조선 인민들을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영원히 얽매여 두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실존주의 철학의 반동성은 종교적 신앙에 대한 설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실존주의자들의 리론에 의하면 《유한한》 인간이 죽음, 공포,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것은 《무한자》인 신으로부터 유리된 데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러한 처지에서 벗어 나자면 《무한자》인 신과 교섭함으로써만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세에서의 고통은 래세에서의 행복이 된다고 로골적으로 설교하는 신앙주의보다 더 세련된 종교 리론이며 죽어 가는 부르조아 사상의 척도로 재단한 신앙주의의 현대판이다.

실존주의자들이 이렇게 《실존》과 신앙주의를 《교섭》케 하는 것은 그들의 리론이 응당 도달하게 되는 귀결점이다.

그것은, 실존이 자기 주관에 의하여 모든 것을 만들어 내는 정신적 추상물이라면 종교는 객관 세계와 사회 현상을 외곡하여 반영한 정신적 추상물로서 같은 속물이 《결혼》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들 간에 다소라도 차이가 있다면 《실존》은 주관에 의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종교는 그 어떤 정신적 추상물이 모든 것을 만들어 낸다는 데 있을 뿐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실존주의의 신봉자들이 신앙주의와 중세기적 몽매주의에 대한 설교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력사적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로후한 지배 계급은 정치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 불안과 파국 상태가 증대될수록 신앙주의와 중세기적 몽매주의에 매달리는 법이다.

남조선에서 실존주의자들이 중세기적 몽매주의와 신앙주의 선전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 나기 위한 최후적인 발악을 리론적으로 안받침해 보려는 데 있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 략탈에 의하여 신음하는 인민들의 이목을 무권리와 빈궁을 강요하는 현실로부터 딴 데로 돌리려는 데 있다.

실존주의 철학은 상술한 모든 날조된 론의와 함께 《현대의 위기론》으로써 혼란과 위기, 파국 상태에 있는 남조선 사회상을 합리화해 보려 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시대는 세계적인 규모에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이 실현되고 있는 시대이며 세계적 무대에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제국주의를 결정적으로 타승하는 력사적 전환기이다.

현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운운하는 것은 오직 현대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멸망의 위기, 식민지 체계의 종국적인 파산의 위기,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 통치의 전면적인 붕괴의 위기를 현대의 전 사회적 현상인듯이 가장해 보려는 데 있을 뿐이다.

남조선에서 실존주의자들은 그 어떤 《집단의 힘》, 《집단의 의사》와 《무질서》, 《혼돈》에 의하여 《인간 가치가 훼손》되며 《인간성》이 《모실》(인간성을 잃는 것) 되여 《위기》가 조성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조작된 리론이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인민 대중은 민족적 및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유린 당하고 억압과 략탈의 대상으로 되고 있으며, 초보적인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여지 없이 짓밟히고 있다.

만일 오늘 남조선에서 《인간성의 모실》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선 미제와 그 주구들이 인민 대중의 피땀을 짜 내는 데 대하여, 인민들을 제멋 대로 살해하는 만행에 대하여, 실업자들을 《이민》으로 노예와 같이 팔아 넘기는 죄악에 대하여 말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집단의 힘》, 《집단적 의사》, 《무질서》, 《혼돈》 등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가 훼손》되며 《위기》가 조성된다고 떠드는 것은 인민 대중의 단결된 힘과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위력한 생활력에 질겁한 자들의 항변에 불과하며 인민 대중의 혁명적 진출에 겁먹은 자들의 화신인 《실존》의 비명에 불과하다.

오늘 남조선에서 《무질서》와 《혼돈》이 생기는 것은 인민 대중 의 《집단적 의사》 때문에가 아니라 전'적으로 미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과 나라와 민족을 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 넘기는 박 정희 도당의 매국적인 정책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무질서와 혼란을 제거하자면 인민 대중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성시킨 미제와 그 주구들을 때려 부셔야 한다.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실존주의 철학의 반동적 본질은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인도주의》에서 찾고 있는 데서도 드러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인도주의는 우선 인간에 대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투쟁에 의해서 그리고 온갖 착취와 억압이 청산된 사회 제도 하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실존주의의 신봉자들은 미제의 강점과 그 주구들의 2중 3중의 착취와 억압이 존재하는 남조선 사회에서의 《인도주의》를 말하고 있다.

이것은 《도적놈이 발이 저리다》는 격으로 인도주의를 찾아 볼 수 없는 남조선에서 《인도주의》를 들고 나옴으로써 현실의 비인도적 참상을 감추려는 것이다.

인도주의를 론하자면 우선 정치적 자유와 평등, 인간에 대한 존중을 론의해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인도주의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유와 평등이 보장됨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존주의의 신봉자들은 자유와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비방 중상하면서 다만 도덕과 륜리의 《회복》, 《수양》만을 떠들고 있다. 즉 사회 제도는 관계 없고 도덕과 륜리로 사람들을 《교양》만 하면 잃어 버린 《인간성》을 찾을 수 있고 모든 무질서와 혼란과 《위기》를 수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렇게 한다면 인간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며 인간에 대한 존중이 실현될 수 있는가?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혼돈시키려는 것이다.

착취 사회 하에서의 도덕은 착취자와 통치자들의 도덕이지 그 어떤 초계급적인 보편성을 띠는 도덕이 아니다.

남조선에서 실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도덕 륜리의 《교양》이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도덕이며 륜리이다. 미제와 그 주구 박 정희 도당은 자기들의 비위에 맞는 도덕 규범과 사회 질서를 만들어 놓고 인민들이 여기에 복종할 것을 강요한다. 만일 이 규범을 위반하면 국가의 권력 기구—군대, 경찰, 헌병, 사법 기관 등—를 동원하며 반항하면 질서의 문란이니, 《란동》이니 하면서 탄압하고 있다. 실존주의자들이 도덕 륜리에 의한 《수양》을 떠드는 것은 인민들로 하여금 바로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순종할 것을 설교함을 의미한다.

사실 상 오늘 남조선에서 실존주의자들은 《인도주의》의 간판을 들고 도덕 륜리를 론함으로써 《정신 혁명》과 《인간 개조론》을 부르짖는 박 정희 도당의 구호를 리론적으로 안받침하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의식을 말살하고 미제에 순종하는 노예 근성을 배양하며 조선 민족의 민족성을 빼앗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존주의자들이 부르짖는 《인도주의》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인도주의이지 남조선 인민들 자신의 사회적 규범이 아니다.

남조선에서 진정한 인민적 도덕을 실현하자면 미제와 그 주구들을 대신하여 인민들 자신이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여야 한다. 그런 조건 하에서만 인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이 보장될 수 있으며 인민을 귀중히 여기는 진정한 인민적 도덕, 륜리와 함께 진정한 인도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 *

오늘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실존주의 철학은 위기와 혼란, 불안과 절망 속에서 갈피를 찾지 못 하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사상 감정을 반영하면서 미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의 결과가 빚어 낸 남조선의 참상을 철학적으로 합리화하려고 헛되게 시도하고 있다.

실존주의 철학이 아무리 남조선 현실을 합리화하려 하고 아무리 미제와 그 주구들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려 한다 하여도 그것으로써는 결코 사태의 본질을 은폐할 수 없으며 조성된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

미제의 식민지 통치와 그 주구들의 반인민적 통치의 위기와 모순은 그들의 의도와는 관계 없이 앞으로 더욱 격화될 것이며 미구에 종말을 면치 못 할 것이다.

따라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멸망과 함께 그의 철학적 변호자인 실존주의 철학도 자기 존재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은 불을 보는 것처럼 명백하다.

축산업의 전문화와 집약화

조　승　운

축산업을 전문화하며 집약화할 데 대한 문제는 오늘 우리 당이 축산 부문앞에 제기하고 있는 중요한 방침의 하나이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는 현시기 우리 나라 축산업 발전의 방향과 방도를 명시하면서 축산업을 가축 별, 생산물 별로 전문화하며 집약화할 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가 있은 이후 지난 1 년 남짓한 기간에 우리 나라의 모든 목장들과 협동 농장 축산 작업반들에서는 생산 방향을 전반적으로 전문화, 집약화하는 데로 돌렸으며 벌써 커다란 성과들을 달성하고 있다.

전원 회의 이후 새로 개편된 전문화 목장들에서는 가축들의 살지는 기간이 단축되고 몸 무게 1 키로 그람 당 살지우는 데 소비하는 사료의 기준량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으며 가축 사양 관리 방법과 축산물 생산에서 귀중한 경험들이 창조되고 있다.

국영 신계, 온성 목장들에서는 목장의 생산 방향을 돼지 고기 생산에로 돌린 이후 돼지 몸 무게 1 키로 그람 당 살지우는 데 소비하는 사료의 기준을 전문화 이전 시기보다 1.5 단위 이상 더 저하시키면서도 8 개월이 되는 돼지의 몸 무게를 평균 28 키로 그람 이상씩이나 더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광포 오리 목장에서는 전문화에 기초한 집약적인 사양 관리 방법을 도입하여 살지우는 오리의 몸 무게를 55 일 동안에 평균 2,280 그람 이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평원, 황주 토끼 목장에서도 토끼 한 마리의 몸 무게를 70~90 일 동안에 1.4~2 키로 그람 이상으로 보장하고 있다.

전문화 목장들에서는 축사를 정비 개조하고 사료 만들기, 나르기, 물 주기 등 축산 작업에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관리공 1 인 당 가축의 관리 두수를 높이는 데서도 큰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 국영 서만포 가금 목장에서는 관리공 한 사람이 6,000 마리 이상의 종자 닭을 관리하고 있으며 서리 목장에서는 관리공 한 사람이 1만 2,000 마리 이상의 살지우는 닭을 돌보고 있다. 력포, 신계, 웅기, 단천, 온성 목장 등 돼지 고기를 생산하는 곳에서도 사정은 동일한데 여기서는 관리공 한 사람이 관리하는 돼지 수가 300~500 마리에 달하고 있다.

축산물의 생산 방향을 전문화, 집약화하는 데로 돌린 이후 협동 농장들에서도 많은 경험들과 성과들이 이루어지게 되였다.

례컨대 황해 남도 평천군 신답리 협동 농장 종축 작업반에서는 큰 암돼지 한 마리에서 평균 17.5 마리의 새끼 돼지를 받아 키워 냈으며 량강도 갑산군 남평 협동 농장의 면양 분조에서는 큰 암양 한 마리에서 평균 2 마리의 새끼를 받아 키워 냈다.

황해 북도 내 협동 농장들에서만도 금년 3.4 분기 말 현재로 1 톤 이상의 고기를 생산한 축산 작업반들이 300여 개나 되며 한 농가에서 100 키로 그람

이상의 고기를 생산한 농호 수가 2만 4,500여 세대나 된다.

축산업을 전문화, 집약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이 제시된 이후 지난 1 년 남짓한 사이에 이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는 실로 크다.

그리 하여 금년 3.4 분기 말 현재 작년 동기에 비하여 전국적으로 조선소는 103.4%, 돼지는 139.4%, 면양은 111.7%, 염소는 128.6%로 각각 그 수가 장성하면서도 육류는 129.9%, 젖은 114.8%, 양털은 117%, 알은 145.2%로 생산이 장성하였다.

축산업의 전문화와 집약화의 결과 축산업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질적 지표도 크게 장성하였는데 같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송아지 생산은 115%, 돼지 새끼 생산은 139%로 늘어 났다. 육류 생산 총량 중에서 돼지 고기와 닭 고기, 오리 고기 등의 생산 비중도 더욱 증대하였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축산업을 가축 별, 생산물 별로 전문화하며 집약화할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오늘 이 부문의 발전에서 얼마나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축산업의 전문화와 집약화—이것은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 육류를 비롯한 축산물 생산을 급속히 증대시킬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

그것은 최단 기간 내에 축산물을 보다 헐하게, 빨리 그리고 값 눅게 생산할 데 대한 당의 요구를 실현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축산업을 전문화한다는 것은 지대적 조건과 사료 원천 및 축산물에 대한 수요에 맞게 가축 별, 생산물 별로 가장 유리한 축종과 품종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주로 축산을 발전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축산업을 집약화한다는 것은 사료와 로력을 집중적으로 투하하고 선진 사양 관리 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값 눅고 질 좋은 축산물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생산을 조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축산업의 전문화와 집약화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축산업의 전문화는 집약화와 결합될 때 커다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집약화는 전문화에 기초하여 조직될 때 가장 큰 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축산업의 전문화는 집약화를 위한 중요 조건으로 되며 집약화는 전문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성과를 더욱 공고화시킨다.

축산업의 전문화와 집약화는 날로 급속히 확대 발전하는 대규모적인 사회주의 축산 경영 조직의 기본 요구 즉 높은 과학 기술의 토대 우에서 축산물 생산에 보다 적은 로력과 사료를 지출하면서도 보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경영을 조직할 데 대한 요구에 적응한 것이다.

가축 별, 생산물 별에 따르는 축산업의 전문화는 우선 생산 조직과 경영 활동에서 기본 생산 방향에 력량을 집중할 수 있게 하며 가축의 사양 관리 방법과 사양 기술을 고도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집약화와 결합되여 생산 공정의 기계화를 촉진시키며 생산을 년중 계속 조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며 축산물 생산에서의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축산업의 집약화는 가축 사양 기간을 단축하며 사료를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축산물 단위 당 사료와 로력의 지출을 훨씬 낮출 수 있게 하며 수익성을 보다 제고시킨다.

축산업의 전문화와 집약화는 축산물 생산에서 관리공 1 인 당 생산액을 높이기 위한 결정적인 고리로 된다.

축산 부문에서 관리공 1 인 당 생산액

의 제고는 기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일정한 기간 내에 같은 로동량을 지출하고도 보다 많은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축산업의 전문화와 집약화는 생산 행정에서 산 로동과 체화 로동을 가장 합리적으로, 절약적으로 리용하여 같은 로력과 사료를 가지고도 보다 많은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축산물의 원가를 저하시키며 관리공 1인당 생산액을 제고시키는 기본 조건으로 된다.

축산업의 발전에서 전문화와 집약화가 가지는 거대한 우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오래 전부터 지대적 조건과 사료 원천 및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면서 축산업을 가축 별, 생산물 별로 전문화하며 집약화하는 데 큰 관심을 돌려 왔으며 특히 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7차 전원 회의에서는 그것을 현시기 우리 나라 축산업 발전의 기본 방향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축산 부문에서 전문화와 집약화에로의 전반적인 이행—이것은 오늘 우리 나라의 축산업이 지난 시기에 비해 한 계단 더 높은 발전 단계에 올라 섰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축산업은 지난 시기에도 물론 전문화, 집약화하는 방향으로 점차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원래 력사적으로 락후하였던 축산업을 물려 받았으며 3년간의 전쟁으로 그것마저 혹심한 피해를 입었던 우리 나라에서는 전후 사회주의 건설의 첫 시기부터 이 부문의 생산을 전반적으로 전문화, 집약화하는 데로 돌릴 수 없었다.

우리 나라 축산업의 력사적 락후성을 하루 속히 퇴치하며 전쟁으로 인한 축산업의 혹심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부문의 공고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여야 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도 거액의 국가 자금을 지출하여 대규모적인 국영 농목장들을 도처에 수 많이 창설하였으며 축산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큰 힘을 돌려 왔다.

당은 특히 전후 시기에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축산업을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며 축산물에 대한 증대되는 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영 축산업과 협동 농장 공동 축산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거기에 개인 부업 축산업을 배합시켜 발전시키는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고 축산업 발전의 기술 경제적 제 대책을 강구 실시하였으며 조건이 성숙되는 데 따라 점차 전문화된 국가 목장들을 창설하고 확대 발전시키는 데 큰 관심을 돌려 왔다.

전후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일관한 노력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축산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급속히 공고화되고 축산 기술 관리 일'군들의 대렬이 해마다 장성하였으며, 우리의 공업은 축사 시설과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현대적인 기계 설비들을 다량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되였다.

또한 공고한 사료 기지가 조성되고 해마다 알곡 생산이 증대됨에 따라 식량의 여유를 가지면서도 일정한 량을 가축의 사료로 돌릴 수 있게 되였으며 종축의 생산 및 공급 체계와 수의 방역 체계도 일층 확대 강화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축산업이 전반적으로 전문화, 집약화하는 방향에로 이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축산업의 보다 전면적인 발전을 위한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조성됨으로써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은 것이다.

전문화와 집약화는 오늘 우리 나라 축산업 발전에서 완전히 성숙된 문제이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이미 튼튼히 꾸려진 사회주의 축산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에 상응하게 금후 이 부문의 발전을 보다 급속히 촉진시키며 생산을 더욱 높은 과학 기술적 토대 우에 올려 세울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담보로 된다.

❋ ❋

현시기 축산업의 전문화와 집약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이 부문 일'군들이 축산물 생산에서 전문화와 집약화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적응하게 생산 경영 조직을 빈틈 없이 잘 하는 데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축산업을 전반적으로 전문화, 집약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이 제시된 이후 우리 나라에서는 국영 농목장들이 농산과 축산을 전문으로 하는 농장과 목장으로 각각 분리되였으며 목장들의 생산 방향은 가축 별, 생산물 별로 전문화하며 집약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편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3,800여 개에 달하는 협동 농장의 축산 작업반들이 종축 작업반으로 개편되고 2만 3,000여 개의 작업반 축산 분조들이 새로 조직되여 지대적 조건과 사료 원천 및 수요에 맞게 협동 농장들에서도 축산을 전문화할 수 있게 되였다.

축산업의 전문화와 집약화에 상응하게 우량 종축에 대한 공급 사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 종축장들도 가축 별로 정리 개편되고 도영 종축장들도 증설 확장되였으며 이 부문의 과학 연구 기관들도 전문 부문 별로 개편되였다.

오늘 우리의 목장들과 협동 농장 축산 작업반들은 축산업을 전문화하고 집약화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가지게 되였으며 전국적으로 종축의 생산 및 공급 체계도 확고히 수립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제 이 부문 일'군들이 지어진 조건과 가능성에 의거하여 생산 경영 조직을 잘 하는 것은 전문화와 집약화의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며 축산물 생산을 급속히 증대시키는 중요한 고리로 된다.

축산업을 전문화, 집약화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전문화된 축산물 생산 단위들에서 기본 생산 방향에 근거하여 가축의 품종을 정확히 선택하며 그것을 부단히 개량하는 것이다.

전문화된 목장들에서 기본 가축의 품종을 옳게 선택하며 그것을 부단히 개량하는 것은 로력과 생산 수단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보다 많은 축산물을 생산하며 기업소의 수익성을 제고시킴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

가축의 품종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되는가 하는 것은 례컨대 닭 고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가금 목장에서 알을 까는 품종의 닭을 가지고 고기를 생산할 때 그 닭은 고기 생산용 닭 품종에 비해 살지는 기간이 더디며 몸 무게 1키로 그람 당 살지우는 데 요구되는 사료의 량이 13~15%나 더 들게 된다는 데서 명백히 찾아 볼 수 있다.

축산물 생산에서의 전문화와 집약화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가축의 품종을 옳게 선택하는 동시에 그것을 부단히 개량하여야 한다.

가축의 품종을 계통적으로 개량하여야만 동일한 사양 관리의 조건에서도 가축의 생산성과 육성률을 급속히 제고시킬 수 있으며 축산물 생산량을 더욱 빨리 증대시킬 수 있다.

가축의 품종을 개량함에 있어서는 고기를 생산하는 목장들이 두 가지 이상의 순 품종을 가지고 1대 교잡을 실시하는 것이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두 가지 이상의 순 품종을 가지고 1대 교잡을 실시한 가축의 품종은 생활

성이 강하여 빨리 자라고 살이 잘 지며 사료의 상환률이 매우 높다.

경험은 닭 고기를 생산하는 전문 목장들에서 송화 닭과 검은 닭을 교잡하여 고기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송화 닭 순종에 비하여 동일한 조건에서도 7~12%의 고기를 더 낼 수 있으며 송화 닭과 누런 닭을 교잡하면 10~30%의 고기를 더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다른 가축의 경우에도 사정은 동일하다.

다음의 자료는 순종에 비하여 1 대 잡종을 가지고 고기를 생산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품종	돼지의 무게 (단위, kg)						한키로그람당 살지는데드는 사료량
	2개월짜리	3개월짜리	4개월짜리	5개월짜리	6개월짜리	하루 동안에 살지는량 (kg)	
순종	18.6	30.8	49.0	70.5	92.8	608	4.49
잡종	18.3	32.1	53.1	74.1	97.1	648	4.22

축산업의 집약화와 관련된 종축 사업에서는 나어린 가축을 기르도록 종축 조직을 잘 하는 데 또한 큰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것은 늙은 가축일수록 사료는 더 많이 먹으면서도 살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이로부터 고기를 생산하는 모든 단위들에서는 지방의 기후 풍토와 사료 조건에 적합하게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의 순 품종을 배치하고 그것으로 1 대 교잡을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년간 계속 살지우기에 리용할 수 있도록 새끼 가축의 생산 조직을 잘 하여야 하며 축군 류동 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

전문화와 집약화를 위한 종축 사업에서는 또한 매개 지방에 분포되여 있는 가축들의 우수한 품종을 조사하고 좋은 품종과 개체들을 골라 종자 가축을 체계적으로 개량하는 대책을 세워야 하며 중앙 종축장으로부터 협동 농장 종축 작업반에 이르기까지 이미 확립된 가축별 종축 체계에 립각하여 우량 종축의 생산 및 공급 사업을 계획적으로 정확히 진행하여야 한다.

축산물 생산에서 집약화의 경제적 효과는 로동력과 생산 수단을 추가적으로 투하한 데 비하여 그 이상의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서 중요하게 표현된다.

따라서 집약화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축산물 생산에 속성 비육 방법을 정확히 도입하는 것이다.

축산물 생산에서 속성 비육 방법은 사료와 로력의 지출을 절약하며 생산 기간을 단축하고 설비 리용률을 제고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일 돼지 고기 생산에 속성 비육 방법을 도입한다면 보통 살지우는 방법에 비하여 돼지의 살지우는 기간을 2~3개월 이상 더 단축시킬 수 있으며 몸무게 1 키로그람 당 살지우는 데 필요한 사료의 량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축산물 생산에 속성 비육 방법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특히 가축의 처분 시기를 옳게 규정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축산업의 집약화에서 가축의 처분 시기를 정확히 규정하여야 축사 단위 면적 당 축산물 생산량을 높일 수 있으며 로력과 자금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축산물의 생산 원가도 부단히 저하시킬 수 있다.

국영 농목장들에서는 돼지, 닭, 오리, 게사니, 토끼 등 모든 가축에 반드시 속성 비육 방법을 전반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경제적 효과성이 가장 높은 시기에 고기로 처분하는 데 큰 주의를 돌려야 한다. 또한 협동 농장들에서도 사료와 기술 등 조건이 준비되는 데 따라 점차 속성 비육 방법에로 이행하여야 한다.

축산물 생산에서의 전문화와 집약화는 가축 사료의 충분한 확보를 전제로 한다.

축산물 생산의 기본 원료인 사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이 없이는 축산업을 가일층 발전시킬 수 없으며 생산의 전문화와 집약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도 없다.

모든 전문화 목장들과 협동 농장들에서는 가축 별, 축군 별, 월령 별, 시기별로 필요한 사료의 량을 계획적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가축의 생리적 특성에 맞게 그것을 공급하여야 하며 특히 가축 사육에서의 배합 사료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료를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사료의 상환률을 최대한 제고시켜야 한다.

사료의 리용률과 상환률을 높임에 있어서 과학적인 사료 가공 처리 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력포, 신계 목장들의 경험은 조사료를 부드럽게 분쇄하고 오리제균, 효모, 누룩 처리 등을 규정 대로 실시하여 푹 삶아 먹인다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비해 사료의 채식률을 20% 이상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국영 목장들과 협동 농장 축산 작업반들에서는 사료의 분쇄 가공 시설들과 오리제균, 효모, 누룩 생산 등 화학 처리 시설들을 더욱 정비 강화하고 농부산물과 곡초 및 건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료 원천들을 백방으로 동원 리용하여 사료의 리용 범위를 확대하며 배합 사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커다란 주의를 돌려야 한다.

사료 문제의 성과적인 해결을 위하여서는 또한 적지 적작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료전의 작물 배치를 더욱 합리화하고 토지의 리용률을 백방으로 제고하여야 하며 우리 나라의 모든 지역에 풍부하게 분포되여 있는 자연 사료 기지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우리는 경지가 제한되여 있고 산이 많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적합하게 논밭 2모작에 의한 사료 작물의 재배 면적을 계속 확대하는 동시에 야산들과 하천 류역을 비롯한 일체 공한지들과 저수지들에 호박, 토끼풀, 수초 등을 광범히 재배하며 칡, 아까시아, 도토리나무밭 등을 더 많이 조성 리용하여야 할 것이며 모든 농장들에서 영양가가 높은 갈 재배 사업을 계획에 의하여 대대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자연 사료 기지를 년차 별 계획에 의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조성하며 그 관리 사업을 일층 강화하여 단위 당 수확고를 제고하며 자연 사료의 합리적인 리용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풀과 고기를 바꾸라》는 당의 요구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축산물 생산에서 집약화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사료의 확보 사업과 함께 그 공급 사업을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사료의 공급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매개 가축들의 생리적 특성과 먹성 등에 알맞게 과학적인 사료 급여 체계를 확립하며 영양 물질 특히 아미노산을 포함한 담백질의 함량을 부단히 높이도록 하는 데 큰 관심을 돌리는 것이다.

축산 작업의 기계화는 전문화 목장들에서 축사를 비롯한 설비의 리용률을 높이며 생산물 단위 당 사료비와 로력비의 지출을 절약하며 집약화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축산물 생산 단위들에서는 전문화에 상응하게 축사를 정비 개조하고 사료 만들기, 나르기, 물 주기, 털 깎기, 젖 짜기 등 축산 작업에 종합적인 기계화를 도입함으로써 일을 쉽게 하면서도 관리공 1 인 당 가축 관리 두수와 그 생산액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축산업에 대한 과학 기술

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축산업의 규모가 날로 확대되고 생산의 전문화와 집약화가 광범히 진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이 부문에서도 농사에서와 같이 기술을 떠나서는 가축과 가금을 잘 길러 낼 수 없으며 생산 행정에 대한 지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농업 지도 기관의 모든 일'군들은 현시기 축산업을 소홀히 하는 그릇된 경향을 결정적으로 배격하고 우리 나라 축산업의 과학 기술적 토대를 한 계단 더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며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에 의거하여 이 부문에 대한 기업적 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축산업의 전문화와 집약화에 상응하게 수의 축산 총국으로부터 전문화된 매개 목장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기술 지도 체계를 확립하며 지도 일'군들 자신이 생산 단위에 직접 내려 가 이신작칙하면서 생산자들 속에 당의 축산 정책을 꾸준히 해설 선전하며 기술 보급 사업을 실'속 있게 도와 주어야 한다.

동시에 농업 과학 연구 기관들과 이 부문 과학 기술자들은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하고 다른 나라의 선진적인 축산 기술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연구 도입하며 가축과 가금의 새 품종 육성, 배합 사료의 생산, 각종 미량 원소와 화학 사료의 도입 등 축산업의 전문화와 집약화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더 빨리, 더 잘 해결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앞으로 1~2 년 내에 농촌 경리의 전반적 분야에서 달성하여야 할 농업 부문 10대 과업을 제기하면서 축산업의 발전에서 보다 큰 혁신을 일으킬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축산업을 급속히 추켜 세워 육류를 비롯한 축산물 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는 것은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촉진과 인민 생활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하여 절실히 제기되는 중요한 혁명 과업의 하나이다. 지금 우리 당은 가까운 1~2 년 내에 육류 생산을 20만 톤 수준에 올려 세울 것을 제기하고 있다.

축산 부문의 모든 일'군들은 축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우리 당이 이 부문 앞에 제기하고 있는 방침들을 성과적으로 관철함으로써 최단 기간 내에 축산업 발전에서 더욱 큰 혁신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통치 수법

김 찬 호

력사는 침략자들이 언제나 저들의 정체를 가리기 위한 《묘책》에 매달린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는 강점을 《해방》으로 묘사하고 침략을 《원조》로 위장하며 예속을 《독립》으로 분식하고 미군을 《유엔군》으로 변장하며 식민지적 지배를 《친선과 동맹》의 위선적인 외피로 분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는 그 무엇으로써도 자기의 침략적 및 략탈적 정체를 결코 가릴 수 없다.

지난 20여 년 간의 력사는 미제야말로 남조선에 대한 가장 포악하고 음흉한 식민지 통치자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 *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가 실시하고 있는 식민지 통치의 주요 특징의 하나는 그 수법이 교활하고 악랄한 것이다.

원래 제국주의자들의 락후한 나라들에 대한 통치 수법은 고정 불변하지 않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제 2 차 세계 대전 이전에 구식민주의자들은 식민지를 지배 통치함에 있어서 주로 로골적인 직접 통치 수법을 리용하였다.

물론 그 때에는 아직 제국주의자들이 포화와 총검으로 공공연한 식민지 통치를 실현할 수 있었고 그 어떠한 반항도 폭압으로써 야수적으로 진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의 사정은 달라졌다.

날로 장성 강화되고 있는 사회주의 진영의 영향 하에 일떠선 수억만 인민들의 강력한 민족 해방 투쟁을 무력만으로써는 진압할 수 없게 되였다.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조건에서 식민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법을 꾸미여 냈다.

이 새로운 수법이 바로 식민지들에서 제국주의자들이 형식 상의 독립을 승인하면서 간접적인 형태와 방법으로 지배를 유지하는 것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가 적용하고 있는 식민지 통치 수법도 일반적 의미에서 볼 때 이 신식민주의 수법과 같다.

그러나 내면 상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형식 상으로는 간접 통치를 하면서도 실제 상에 있어서는 직접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미제가 남조선에 미국인으로 구성된 각종 통치 기구, 고문단들을 두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잘 알 수 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괴뢰 정부의 조작, 《원조》와 자본 수출, 각종 조약과 협정의 체결, 미군의 주둔 등 각종 형식과 방법을 통하여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부문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남조선이 신식민주의의 은폐된 수법의 집결처로, 미제의 전형적인 식민지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식민지 통치를 이처럼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감행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남조선에 대한 정치 군사적 목적과 관련된다.

미제의 극동 침략 계획에서 남조선은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초기에 벌써 《북부 아세아의 어떠한 지역에 대해서도 공격할 수 있는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초적 전략 기지》(《저널 아메리카》, 1947년 10월 30일)라고 하였다.

이것은 근거 없는 말이 아니다. 남조선은 지리 상으로나 전략 상으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남조선은 미제가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고 있는 일본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

남조선의 이러한 조건은 미제로 하여금 저들의 극동 침략 정책 실현에서 남조선에 주요한 의의를 부여하게 했다.

미제는 남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시킴으로써 아세아 대륙을 침략하며 날로 높아 가는 인민들의 민족 해방의 불'길을 꺼 볼 것을 타산하고 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 날부터 가장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식민지 통치를 감행하였다.

과거에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들에서 총독을 두고 직접적인 통치를 하였었다. 그러나 이러한 로골적인 방법을 리용할 수 없게 된 조건 하에서 그들은 괴뢰들을 내세워 식민지 통치를 실현한다.

그것은 괴뢰들을 통한 식민지 통치가 해방된 나라 인민들에게 그 어떤 정치적 자주권이라도 부여되고 있는듯한 외관을 조성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식민지적 지배와 통제를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미제는 오늘 남조선에서 자기들의 빵 부스러기로 길러 낸 앞잡이들을 《정권》에 들여 앉히고 있다.

남조선 력대 괴뢰 국회의 계급 구성을 본다면 거의 대부분이 지주, 예속 자본가, 반동 관료배 등 친미, 친일 주구들이다.

이 친미, 친일 주구들이 미제의 침략과 략탈을 위한 정책에 충실히 복무하리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한편으로 미제는 남조선에서 미국인으로 구성된 통치 기구를 통하여 모든 부문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의 현지 조달 기관인 이른바 《주한 미 대사관》, 《유엔군 사령부》, 《주한 미 경제 협조처》 등의 활동이 바로 그 실례로 된다.

남조선의 모든 실권은 사실 상 이러한 미제의 통치 기구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실제 상 미제가 직접적인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정치적 지배는 경제적 예속을 기초로 할 때 공고한 것으로 되며 따라서 경제적 예속은 그 자체가 곧 정치적 예속을 낳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정치적 예속과 함께 경제적 예속에 주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예속과 지배를 위하여 《경제 원조》, 자본 수출 등을 강화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 괴뢰 정권을 통하여 남조선 경제에 대한 예속을 법적으로 합법화하며 《원조》 계획 집행 기구인 《주한 미 경제 협조처》, 《고문단》 등을 통하여 《원조》 물자와 《원조》 자금 (대충 자금)의 공급 체계를 확립하며 이에 침략과 략탈의 안내자인 예속 자본가, 봉건 지주 등 반동 세력들을 인입하는 방법으로 남조선의 경제 전반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미제는 《원조》를 미끼로 우선 남조선 재정을 장악하고 그것을 식민지 통치 체계를 유지하며 군사비를 조달하는 공간으로 리용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미제가 《조선 은행》을 비롯한 과거의 모든 재정 금융 기관의 명칭을 개편하고 일체 재산과 관리권을 장악한 사실은 그 실례로 된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은 남조선 경제 전반을 군사 기지화 정책에 복종시키기 위한 출발인 것이였다.

미제는 남조선의 재정적 공간을 완전히 틀어 쥐고 과잉 상품 판매, 군사 전략적인 원료의 략탈, 군수품 《현지 조달》에 편리하게 공업 구조를 개편하고 이에 《원조》 물자와 《원조》 자금 (대충 자금)을 공급하고 《기술 고문》들을 파견함으로써 남조선 경제를 저들의 군사화 정책에 복종시키고 있다.

미제는 또한 일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국영 기업》으로 전화시키는 방법으로 남조선 경제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실현하고 있다.

그것은 《귀속 재산》이 남조선 경제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군수 공업과 관련되여 있기 때문이였다.

1962년 현재 남조선 공업 생산에서 《국영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본다면 석탄에서 48%, 철광석에서 57%, 중석에서 85%, 비료, 전력에서 각각 100%, 강철에서 82%에 달하고 있다.

이 《국영 기업》은 실제 상 다른 경제 부문의 생산 규모, 경영 활동을 좌우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국영 기업》을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군사 기지

화 정책 실현의 주요한 물질적 수단의 하나로, 저들의 침략과 략탈의 안내자, 동맹자를 육성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리용하는 것이다.

미제는 침략과 략탈 정책에 대치되는 기업체들을 의식적으로 파괴 해체하고 예속 자본가들에게 원료와 《원조 자금》(대충 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그들의 경제적 지위를 높여 값 눅은 군수품을 현지에서 조달하고 있다.

미제의 비호하에 육성된 예속 자본가들은 주로 과잉 상품의 가공과 군수품 《현지 조달》에 복무하고 있는데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생산 비중은 제조 공업에서 28%, 광업에서 약 75% 이상에 달하며 방직, 제당 공업 등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공업과 함께 농업을 예속시키고 있다. 남조선에서 인구의 절대 다수를 이루는 것은 농민이며 생산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그러므로 미제는 남조선 농촌을 군사비와 군량미를 조달하며 전쟁 대포'밥을 증대하는 유리한 대상으로 리용할 것을 타산하였다.

그러나 2 차 대전 후 국제 정세의 변화와 함께 남조선에서도 계급적 력량 관계가 변화됨으로써 과거 일제와 같은 농촌 정책을 실시할 수 없었다. 미제는 일제의 대지주 육성 정책과는 달리 중소 지주의 육성 정책을 실시하였다. 남조선에서 실시한 이른바 반동적인 《농지 개혁》 책동은 그러한 조치의 하나이다. 이 《농지 개혁》 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에서는 약 10 만에 달하는 중소 지주들이 미제의 남조선 농촌 략탈 정책에 복무하고 있다.

기만적인 《〈농지 개혁〉은 지주 토지 소유를 그 대로 보존하였으며 공개적인 또는 은폐된 각종 형태로 농민들을 소작 제도에 얽매여 놓고 있다》(김 일성 선집 제 5 권, 1960년 판, 137 페지).

미제는 또한 반동적인 《농업 조합》을 조직하였다. 《농업 조합》은 류통과 신용 체계를 통하여 미국 독점들의 식민지 초과 리윤 획득과 지주들의 치부를 보장하며 반면에 농민들을 기아와 빈궁에로 몰아 넣는 도구로 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이른바 《원조》가 예속과 략탈의 도구라는 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제 원조》의 명목으로 35 억 딸라를 남조선에 투입하고 그 대신 약 100억 딸라에 해당하는 재부를 략탈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원조》의 본질을 리해할 수 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다만 식민지로서 뿐만 아니라 새 전쟁의 전초 기지로 리용하기 위하여 군사적인 지배,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주한 미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해군 사령부》, 《공군 사령부》, 《미 합동 군사 고문단》을 두고 있다. 이것들은 남조선의 괴뢰군 전반을 통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제는 유엔군의 남조선 강점과 남조선 괴뢰군에 대한 《주한 미군 사령부》의 작전 지휘권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괴뢰 정권과 《한미 호상 방위 조약》, 《한미 군사 협정》, 《한미 회담 의사록》 등 일련의 침략적인 협정과 조약들을 체결하였으며 괴뢰군에 대한 지휘와 통제권을 법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하여 《대한 민국 정부와 미 합동군 간의 주한 미 군사 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까지 체결하였다.

이리 하여 남조선의 괴뢰군은 사실 상 미국의 무장력의 연장이며 보충물로 되고 있다.

리 승만 괴뢰 정부의 《주미 대사》까지도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토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은 우리의 모든 무기를 통제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가 쓸 모든 휘발유를 장악하고 있으며 2일간 사용할 분량만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다. 누구나 이런 방식에서는 크게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미제는 괴뢰군에 대한 일체의 통수권을 틀어 쥔 데 기초하여 남조선 전역을 군사 기지로 만들고 있다. 현재 남조선에는 192 개에 달하는 군사 기지가 설치되여 있으며 도처에 비행장, 군항, 군용 도로 및 교량 등 각종 군사 시설이 건설되여 있다. 뿐만 아니라 남조선에는 각종 인간 살륙 무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식민지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침략과 함께 사상적 침투를 강화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 수법으로 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하여 우매화 정책을 강화하면서 퇴폐적인 《미국식 생활 양식》을 침투시키고 《반공》, 《숭미》 사상을 고취하고 있다.

미제는 부르조아 사상 문화 침략의 합법적 도구로서 괴뢰 정부의 《문교부》, 《공보부》, 《국방부》, 《내무부》와 각 부문 산하의 《공보실》 및 교육 선전 기구들을 리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조선 주재 미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한 《주한 미 공보실》, 《주한 미국 교육 위원회》, 《주한 교육 관계자 합동 위원회》, 미국인 교육자, 언론인들을 리용하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미국식 생활 양식》과 반동적 부르조아 사상을 남조선 인민들 속에 전파시키는 수단으로 되고 있다. 미제는 또한 천주교를 비롯하여 각종 종교들을 남조선에 끌어 들여 남조선 인민들에게 무지와 몽매, 미제에 대한 굴종, 부화 타락을 강요하고 있으며 조선 민족의 모든 슬기롭고 고귀한 민족 유산을 유린 말살하고 있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은 례외 없이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며 남조선 인민들을 식민지 노예로 만들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제반 사실은 남조선의 통치자는 실제 상에 있어서 미제이며 그 통치 수법이 전례 없이 교활하고 악랄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 *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교활하고 악랄한 식민지 통치는 남조선 인민들의 분노와 격분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 통치

를 반대 배격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전례 없이 높아 가고 있다.

얼마 전 미제의 조종 하에 《한일 회담》 조기 타결 책동을 계기로 하여 일어 난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애국적 봉기는 그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6. 3 봉기 때 남조선의 광범한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은 《반외압》을 주요한 투쟁 구호의 하나로 제기하였으며 그들은 시위에서 미국인이 탄 승용차에 투석까지 하면서 용감히 투쟁하였다.

이것은 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항거의 표시이다.

미제는 뒤흔들리는 식민지 통치 지반을 유지해 보려고 한편으로는 군사 파쑈적 탄압을 강화하며 다른 편으로는 남조선 인민들을 회유 기만하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은 미제의 조종 하에 애국적인 청년 학생들에 대한 탄압 책동을 합법화해 보려고 《학원 보호법》을 조작하였으며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언론인들에 대한 파쑈적 탄압과 통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언론 륜리 위원회법》을 만들어 냈다.

그들은 또한 학생, 교원, 언론인, 정치인 등 광범한 대중 속에서 진보적인 사람들을 검거 투옥하기 위하여 이른바 《인민 혁명당》 사건까지 날조하였다.

미제는 괴뢰들을 조종하여 이와 같이 파쑈 폭압 책동을 강화하면서 경제적 파국과 민생고로 말미암아 격화된 남조선 인민들의 불평,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온갖 허위적 구호들을 표방하고 있다.

미제의 조종 하에 박 정희 도당은 《식량 확보 계획》, 《식량 증산을 위한 농지 개발 계획》을 추진하며 《수출을 증대》하여 외화를 획득하며 《경제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남조선의 경제 파국과 민생고를 해결하겠다고 요란하게 떠들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반《정부》적 감정을 딴 데로 돌림으로써 허물어져 가는 식민지 통치를 유지해 보려는 기만 술책에 불과하다.

침략자들은 위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자기들의 잔명을 부지해 보려고 발악하기 마련이다.

현실은 우리 인민들에게 미제의 침략과 략탈에 대한 최대의 경각성을 높이며 반미 구국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제가 남조선에 하루라도 더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남조선 인민들에게 더 큰 화만 차례질 것은 뻔하다.

전체 조선 인민은 굳게 단합하여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 내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오늘 남조선에 빚어지고 있는 극심한 경제적 파국과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조선 인민은 이 숭고하고 절실한 혁명 위업을 반드시 실현하고야 말 것이다.

《후진》 국가들에 대한 미제의 사상 문화 침략

김 용 환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폭력적 수단과 함께 사상 문화적 수단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리용하고 있다.

일찌기 레닌은 《온갖 압박 계급은 자기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두 가지 사회적 기능 즉 형리의 기능과 승려의 기능을 필요로 한다.》(레닌 전집 제21 권, 264 페지)고 지적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 수행에서 이 두 가지 기능은 어느 때나 호상 배합되여 리용된다.

사상 문화 침략은 오늘 미 제국주의의 신식민주의적 수법의 하나로서 그들의 다른 나라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침략과 함께 대외 침략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그 길잡이로 되고 있다.

한때 악명 높은 《전쟁 접경》 정책에 매달렸던 아이젠하워, 덜레스까지도 사상 문화 침략에 대하여 《홀시할 수 없는 불가결의 요소》라고 하면서 《대통령 대외 선전 관계 위원회》라는 특별 기구를 만들어 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사상 문화 방면에 쓴 매 딸라의 가치는 국방에 쓴 5 딸라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한 손에는 화살을, 한 손에는 감람나무 가지를》이라는 《량면 정책》에 매달리고 있으며 《평화 전략》의 구호 밑에 사상 문화 침략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은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 사상 문화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 있다. 그들은 이 지역 나라들에 대한 사상 문화 침략을 강화함으로써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에 궐기한 인민들의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며 새 생활 건설에 일떠선 신생 독립 국가들에 대한 공산주의 사상의 영향력을 막으며 그들을 영원히 식민지적 예속 하에 얽매여 두려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밑에 오늘 미제는 수많은 인원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사상 문화 침략에 광분하고 있다.

* *

미 제국주의자들의 사상 문화 침략이 노리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구 상에서 공산주의 사상의 영향을 《말살》하며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적 각성을 마비시켜 타국에 대한 침략과 략탈 및 식민지 지배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다.

케네디는 미제의 《평화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사상

을 말살하며》,《인심을 쟁취하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오늘 맑스-레닌주의 사상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지배적인 사상으로 되였을 뿐만 아니라 지구 상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 잡고 있다.

특히 맑스-레닌주의 사상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을 위한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해방 투쟁과 새 생활 창조에 나선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의 투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되고 있다.

따라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제일 무서워 하고 있으며 《반공》 선전을 발광적으로 또 악랄하게 전개하고 있다.

현시기 《반공산주의》는 진보적 사상과 진보적 인민들의 투쟁을 반대하기 위한 자본가 계급의 기본적인 사상적 무기로 되고 있다. 때문에 《반공》 선전은 미제의 대외 사상 문화 침략의 주되는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 《반공》 선전에서 주되는 것은 사회주의 제도와 맑스-레닌주의 학설에 대한 악의에 찬 비방, 중상, 외곡과 허위 날조이다. 《자유 구라파 방송국》의 두목인 애인스트 랑겐은 로골적으로 미국의 《방송에서 거짓말은 청중의 사상에 영향을 주는 중요 수단으로 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제도에서 살아 보지 못 하였고 맑스-레닌주의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허위와 기만으로 영향을 주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미제가 소위 《공산주의 침략성》에 대한 허위 선전과 자유, 민주주의, 인도주의 문제 등에 대한 외곡 선전에 얼마나 광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미제는 사상 문화 침략에서 이미 그 정체가 폭로된 이러한 낡은 수법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사회주의와 맑스-레닌주의 학설을 비방 중상하는 한편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대한 소위 《리론적 극복》과 《비판》을 시도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사상 문화 침략에 고용된 반동 부르죠아 《리론가》들은 맑스-레닌주의 학설의 혁명적 의의와 그 세계관적 기초를 외곡하여 《맑스-레닌주의 교리가 오늘의 력사적 현실을 설명할 수 없으며》 이미 《낡았다》는 것을 《론증》하며 특히 사회적 진보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학설을 외곡하고 《비판》해 보려고 애쓰고 있다.

이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은 케네디가 미 국무성 정책 기획 위원회 위원장으로까지 등용하였던 로스토우가 쓴 《반공산당 선언》을 비롯한 《맑스주의를 리론적으로 극복한다》는 이른바 《반공 리론》들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것으로써 저들의 《반공》 선전에 활기를 불어 넣으려 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사상 문화 침략에서 노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자본주의 제도를 미화하며 숭미, 공미 사상을 고취하는 것이다.

숭미, 공미 사상, 자본주의 미화론은 미제의 사상 문화 침략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미 제국주의의 정치, 경제적 위기가 전례 없이 심각화됨에 따라 현대 자본주의의 불치의 모순을 은폐하며 특히 미 제국주의의 이른바 《강대성》과 자본주의의 영원한 《발전》과 《번영》에 관한 신화를 인민들 속에 주입시키는 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절실한 문제로 되고 있다.

미제에 대한 미화는 주로 두 가지 형태로 즉 하나는 그 침략적 본성과 후과를 은폐하며 다른 하나는 숭미, 공미 사상을 고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제의 침략적 본성과 그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이 빚어 낸 후과를 은폐하는 데서 《도의론》, 《신말사스주의》, 《후진국 개발론》과 같은 부르죠아 사회 경제학 《리론》과 실용주의, 실존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 부르죠아 철학은 중요한 사상적 무기로 되고 있다.

미국 《도의론》자의 두목인 플류엘링은 《인간의 개성을 개조》하는 것이 《사회 문제 해결》에서 급선무로 된다고 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새로운 정신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도의론》도 온갖 사회악의 근원이 《민족성의 타락》, 인민들의 《도의의 타락》에 기인하며 따라서 사회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를 변혁할 것이 아니라 타락한 《도의》를 재건하고 《민족성》을 개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은 《반공 도의 교육》을 표방하면서 《인간 개조》를 《 2대 혁명 과업의 하나》로까지 내세웠다.

미국의 《신말사스주의》자들은 인류의 모든 재난의 화근이 인구 증대에 있다고 하면서 자본주의 국가 근로자들의 빈궁과 기아의 원인이 부르죠아적 착취 제도에 있다는 것을 은폐하고 있으며 저들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합리화하고 있다.

미제가 류포시키고 있는 《신말사스주의》는 박 정희 도당의 《가족 계획》, 《해외 이민 계획》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른바 《국가 정책》에까지 반영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후진국 개발론》도 그들이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 대한 착취와 지배를 은폐하며 합리화하는 신식민주의의 《리론적》 도구로 복무하고 있다.

미제에 대한 미화, 숭미, 공미 사상의 선전에는 여러 가지 사상 문화 수단들이 광범히 리용되고 있다. 미국 지배층들은 현지 어용 문화 예술인,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 언론인, 사회 활동가들을 소위 《인사 교류》라는 명목으로 미국에 끌어다가 견학과 관람을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이른바 《미국의 번영》, 《미국의 경제 기술적 우월성》, 《미국의 강대성》 등에 대해서 떠들게 하고 있다.

금년 9 개월 간에만도 소위 《인사 교류》라는 미명 하에 미국에 《초빙》한 외국인 수는 75만 1,436 명에 달하며 9월 한 달 동안에는 9만 5,000 명에 달했다고 한다.

다른 한편 수 많은 어용 학자들을 동원하여 소위 《미국 자본주의의 근본적 변모》에 대한 역설을 만들어 내게 하고 있다.

오늘 미국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인민적 자본주의론》, 《복지 사회론》, 《인도주의적 자본주의론》, 《균

형적 자본주의론》 등이 모두 그러한 것들이다.

이 잡다한 자본주의 《변호론》들은 어느 것이나 례외 없이 결론은 모두가 《미국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자신도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3,200만의 사람들이 빈궁에 쪼들리고 있으며 수 많은 실업자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은 미국에서 계급적 한계가 소멸되고 있고 《자본주의의 영원한 번영》이 이룩되고 있다고 떠드는 자본주의 변호론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가를 실증하여 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또한 그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강대성》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며 세계 인민들에 대한 《핵 공갈》 정책을 감행하여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 속에서 공미 사상을 조장시킴으로써 인민들의 투쟁 의지를 꺾으려 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사상 문화 침략에서 노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썩어빠진 미국식 생활 양식과 미국 문화를 주입시켜 사람들을 부화 타락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의 침투를 방지하며 계급 의식과 민족적 각성을 마비시키며 저들의 착취와 침략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라고 간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지배층들은 각종 사상 문화 수단들을 통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미국식 문화와 생활 양식을 대대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미제는 색정, 불륜(不倫), 살인, 깽, 탐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렵기적이며 퇴폐적인 미국 영화와 쟈즈, 맘보, 트위스트 등 음악과 무용 그리고 퇴폐적인 문학 작품들과 추상파 미술, 방송, 텔레비죤, 신문, 잡지, 도서, 체육, 종교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사상 문화 수단들을 이 목적에 리용하고 있다.

오늘 미제가 전파시키고 있는 미국식 생활 양식과 문화는 해당 나라의 고유한 민족 문화와 생활 풍습을 파괴 유린하고 사람들의 민족적 각성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 향락과 극단한 부르죠아적 리기주의를 조장시키며 비애와 절망, 무기력과 허무주의 사상을 부식시킴으로써 사람들의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

사상 문화 침략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이 노리는 목적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목적들은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바 그것은 《피압박자들을…지배와 타협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혁명적 활동을 포기케 하며 그들의 혁명적 기분을 해소하며 그들의 혁명적 각오를 좌절》시키는 것이다(레닌 전집 제 21 권, 264 페지).

❊ ❊

미국 지배층은 사상 문화 침략을 강화하며 저들의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하고 있다.

그들은 사상 문화 침략을 위하여 미국 정부 기구, 민간 단체, 국제 기구 등을 리용하고 있는데 이 방대한 기구들은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미 중앙 정보국》 또는 《미 국방성》과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미국 정부 기구 중 가장 큰 《합중국 대외 정보국》(그 성원만도 1만 1,000 명이 넘는다)은 미국의 《선량한》 정책, 미국식 문화와 생활 양식을 해외에 선전하는 일방 외국에 파견되여 있는 기관들로부터 해당 국가에 관한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 기구는 100여 개의 국가에서 360여 개의 영사 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소리》 방송을 50여 개 언어로 진행하고 있다. 미 국무성 《교육 문화 사무국》은 《인사 교류》와 《문화 교류》 활동을 통하여 특히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 사람들을 매수하고 숭미 분자들을 양성하며 미국식 생활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외 《원조》 기관인 《국제 개발처》는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 대한 재정 기술적 《원조》를 통하여 사상 문화 침략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성의 해당 부서들과 수십 개의 정부 기관 단위들도 이에 복무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미국 정부 기구들은 현지에 파견되여 있는 각종 기구들을 조종하고 있는데 특히 《공보원》은 현지에서 미제의 사상 문화 침략을 통일적으로 지휘 감독하며 그 나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을 작성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종 《재단》들을 포함하여 이러저러한 종교 단체, 《자유 구라파 위원회》, 《미국 볼쉐위크 해방 위원회》와 같은 악명 높은 민간 반공 단체들과 국제 기구인 《국제 련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 (유네스코)》, 기타 허다한 《합영》 단체들이 사상 문화 침략에 직접 리용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수단들을 발동하여 한편으로는 《반공》, 숭미 사상과 퇴폐적인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하여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의 고유한 민족 문화를 유린 말살하고 그들의 민족적 의식과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며 다른 편으로는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 친미 분자들을 양성함으로써 자기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용이하게 실현하려 하고 있다.

미제의 사상 문화 침략에서 교육은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각성된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종교의 교리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들은 세계 도처에다 학교를 세우며 외국 대학들에 《원조》를 주며 교수와 전문가들을 파견하며 교수와 학생들을 교환하는 등으로 우선 민족의 기둥이며 가장 감수성이 강한 청소년들과 인테리들에게 숭미, 친미 사상을 주입시키며 그들을 미국식 생활 양식에 물젖게 함으로써 정신적 《불구자》로 만들며 친미 세력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

미국 영화는 미제의 사상 문화 침략에서 극히 악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영화는 《반공》 선전을 하며 양키식 생활 양식을 류포시키고 사람들의

건전한 생활을 타락케 하는 아편으로 되고 있다.

1961년에 미국 할리우드 영화 제작소에서 촬영한 《반공》 영화는 그 전해에 비하여 3 배에 달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수출하는 색정, 갱, 탐정 등 내용의 미국 영화는 이 지역 인민들의 정신 생활에 커다란 해독적 작용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민족 문화 전통과 민족적 풍습을 더럽히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국 영화가 탁류처럼 범람하고 있는데 1955~1961년 기간에만도 수입된 미국 영화는 실로 798 편에 달하였다.

방송과 출판물도 사상 문화 침략에서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 속에 숭미, 공미 사상을 부식시키며 《반공》 선전을 강화하기 위한 미제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되고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 《자유 구라파 방송국》, 세계 도처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들의 《군인 방송》 등 허다한 방송망들이 《반공》, 숭미 사상을 고취하고 있으며 음탕한 노래를 주야로 불어 대고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88 개(그 중 7 개만이 미국에 있고 나머지는 외국에 있다) 이상의 방송 설비를 가지고 1 주일 동안에 700 시간의 방송을 하고 있다.

현재 남조선에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18 개의 《미 주둔군 방송국》과 그들의 통제를 받는 허다한 관영 및 민영 방송국들이 있다.

미제 침략자들은 이러한 방송 수단들을 통하여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제도를 중상 비방하는 《반공》과 퇴폐적인 양키식 생활 양식을 선전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또한 해마다 수백만 부에 달하는 각종 반동 출판물들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 배포함으로써 이 지역 인민들의 슬기로운 넋을 더럽히며 모든 진보적 사상을 《말살》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최근 10 년 간 미국의 도서 수출량은 75%나 증가하였다. 《합중국 대외 정보국》이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쇄소만 해도 70 개가 넘으며 현지 언어로 출판하는 잡지 수는 70여 종에 달한다.

미제의 사상 문화 침략에서 종교는 가장 오랜 력사를 가지고 있다.

한 세기 이상을 줄곧 미 제국주의의 정치, 경제, 군사 침략에 길잡이를 해 온 종교는 최근 년간에도 계속 미제의 대외 침략에 복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

1950년부터 1960년까지의 지난 10 년간에 해외에서 활동하는 미국 선교사의 수는 80%나 증가하였다. 미국 선교사들은 소위 《천상》에서의 《행복》과 《도덕적 재무장》을 설교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을 포기케 하려 하고 있다.

1960년에 미국의 통제 하에 있는 《전 아프리카 기독교 회의》가 발표한 한 성명에는 아프리카에서의 독립 운동은 《질서 있는 평화적 과도》를 통하여 실현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질서》를 피하고 《도덕적 재무장》을 해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다.

해외에 파견되는 선교사들은 《자선가》의 외피를 쓰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 기여 들어 간첩 활동을 감행하는 한편 종교를 통한 《반공》, 숭미 사상을 고취하는 등 침략의 길을 개척하기 위한 선발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61년 3월 케네디에 의해서 조직된 《평화군》 역시 오늘 미제의 대외 사상 문화 침략에 복무하고 있다.

미국 잡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평화군》이 할 일이란 《지난 한 세기 동안 미국 선교사들이 해 온 것》과 다름 없으나 그 정체가 이머 드러난 《종교 활동과는 될수록 련계를 피하고》 자기를 《락후한 민족》의 《진정한 벗》으로 가장하면서 《선교사들이 개척하기 어려운 처녀지를 개척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리 하여 오늘 교원, 간호원, 의사, 기술자 등으로 가장한 미국의 《평화군》들이 근 50 개 나라들에 침투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존슨은 《그 성원 수를 1965 년 9월까지 두 배로 확장할 것》이라고 떠벌리고 있다.

미국의 《평화군》은 《진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 파견된 것이라고 떠들고 있으나 실지는 그 나라에 침투하여 사람들 속에 숭미, 공미 사상을 고취하고 있으며 정치적 예속을 위한 파괴, 정탐, 음모 행위들을 일삼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 밖에도 사상 문화 침략을 위한 각종 수단들을 리용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미제야말로 세계 인민들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흉악한 원쑤이며 세계 반동의 지주이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 *

오늘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은 미제의 사상 문화 침략의 본질과 그 해독성을 더욱더 명백히 파악하고 있으며 미국식 문화와 양키 생활 양식을 배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미제의 사상 문화 침략을 반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의 투쟁은 그들의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의 주되는 일환을 이루고 있다.

미제의 사상 문화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은 특히 민족 문화를 옹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애국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은 오랜 력사와 찬란한 민족 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 새 생활 창조를 위한 투쟁과 더불어 새로운 민족 문화를 개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새 생활 창조와 건전한 민족 문화의 발전은 식민주의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민족 문화 말살 정책에 의하여 빚어진 후과와 양키 문화의 독소를 제거하며 미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고 있는 사상 문화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사상 문화 침략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강력한 대중 투쟁으로 확대되자 지금 이 투쟁에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 정부들까지도 합류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 8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양키식 생활 양식을 퍼뜨리는 데서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영화 회사의 모든 활동을 금지시켰으며 지난 4월 버마 정부는 랑군, 만달레이 등에 있는 미국 공보원 산하 도서관, 전람회, 박물관의 활동을 정지시켰다. 지난 2월에 미국의 출판물들인 《타임》과 《에이시언 스튜 던트》의 배포를 중지시킨 바 있는 쎄일론 정부는 10월에 또다시 가장 큰 친미 신문 련합체를 국유화하였다. 캄보쟈 국가 원수 시하누크는 미국 기자들이 캄보쟈 정부를 비방 중상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여 지난 4월 자기 나라에 주재하고 있던 미국 기자들을 축출하였다.

오늘 미제의 사상 문화 침략을 반대하는 각국 인민들의 투쟁은 도처에서 광범한 군중을 망라한 대중적인 반미 투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반제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의 앙양에 따라 더욱 치렬해지고 있다.

이 투쟁은 민족적 범위를 벗어나 국제적인 공동 전선의 형태를 취하면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의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 전선의 중요한 일익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를 완전히 청산하고 자주적인 자유로운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민족의 넋을 침식하며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는 제국주의의 사상 문화 침략으로부터도 완전히 해방되여야 하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인민들의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며 저들의 식민지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온갖 교묘한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사상 문화 침략에 매달린다 하더라도 각성되고 투쟁에 일떠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미제 침략자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끌어 들이고 있는 사상 문화는 그것이 퇴폐적이며 반동적이기 때문에 인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미제의 사상 문화 침략 정책은 조만간에 파탄되고야 말 것이다.

근 로 자 제 23 호 (루계 261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근 로 자 사 주 소•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1964년 12월 3일 발 행• 1964년 12월 5일

ㄱ—430728 값 40 전